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realty.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하버드 대학 공중 보건대 중국식 이름 딴 찬 스쿨로

하버드대 이름 최소 3억 5천만불로 설정
크림슨, 3억 5천만불 기부 뒷이야기 다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학은 8일 이례적으로 공중보건대학의 이름을 찬 스쿨로 바꿨다. 같은 날 홍콩부동산 재벌이 사상 최고액인 3억 5천만불을 기부했다는 소식도 발표했다. 다른 듯 같은 한 이야기, 즉 하버드가 중국계 억만장자의 이름을 따 재개명하게 된 뒷 배경이 10일 하버드 크림슨을 통해 자세히 보도됐다.



3억 5천만불을 쾌척한 중국계 억만장자 하버드 동문 제럴드 찬

윌리엄 리는 오랜 친구 제럴드 찬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 둘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하버드 동문인 이들은

들이 (중국계 동문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정상에 오른) 모든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농담도 나눴다고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색다른 주제로 화제를 옮겼다. 제럴드 찬은 자신이 졸업한 하버드 공중 보건대학 이름을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개명하고 대가로 기부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솔직하게 개진했다. 제럴드 찬은 아버지 T.H. 찬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수배로 증식해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은 홍콩의 부동산 재벌이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세계적으로 1,000여명의 변호사가 일하는 로펌의 파트너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윌리엄 리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며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일” 이라고 답했다.

윌리엄 리는 바로 드루 파우스트 >>3면으로 계속

지난해 가을, 하버드 72년도 졸업생인 중국계 윌리엄 리씨는 하버드대를 관장하는 하버드 코퍼레이션의 시니어 펠로우로 임명됐다. 하버드 코퍼레이션은 총장과 동문이사(펠로우)로 구성되는데 윌리엄 리씨는 동문이사 중 수석 동문이사 가 된 것이다.

윌리엄 리 시니어 펠로우는 하버드 크림슨과의 인터뷰에서 “필그림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C) 입학한 가야금 주자 김도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가야금을 전공한 국악인 김도연 학생(24)이 보스톤의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 학교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w England Conservatory)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했다.

김도연 학생은 지난 3일부터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현대 즉흥 음악과(Contemporary Improvisation Department)에서 공부를 시

작했다. 가야금과 바이올린, 판소리와 성악.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음악 세계의 생소한 만남은 김도연 학생이 매일 마주하는 현상이다.

서울대 국악과를 수석으로 전공한 김도연 학생은 한국의 국악을 세계화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보스톤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학교를 정하기 전 음악 대학 TOP10을 검색하고 알아본 결과 유일하게 가야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금주의 매물

Rental Listings

- 52 River St, Newton, 3 beds, 1.5 baths, 2 cars garage, \$2,900
- 701 Hammond St #1 Brookline, 3 beds, 1 bath, 1 parking, gas and electric 포함, \$2,800
- 116 Burkhal St. #O Weymouth, 2 beds, 1 bath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가야금 통해 국악의 세계화를 이루고 싶어"

▶▶1면에 이어서

금으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학교는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의 즉흥 음악 과뿐이었다.

가야금과 한국예술을 알리며 많은 외국 친구들과 교수진의 합주 리퀘스트를 받고 있는 김도연 학생은 "넓은 음악적 견문을 쌓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 기쁘다" 고 전했다.

인터뷰를 위해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앞 작은 카페에서 김도연 학생을 만났다. 수수하고 밝은 웃음을 가진 김도연 학생은 어느 대학생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우륵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 동아 국악콩쿠르 등의 수많은 대회에서 금상 및 최우수상 입상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이다.

▶보스톤에서 가야금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전통예술이 일본이나 중국의 것에 비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야금 연주를 통해 우리문화를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야금을 통해 국악을 세계에 알리는 인물이 되기를 꿈꾸게 되었다. 무엇보다 더 넓고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쌓고

나의 부족함을 빨리 깨닫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다. 한국에서 가야금을 더 배울 수도 있었지만 언제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을 가능한 한 어릴 때 많이 느끼고 배우고 싶다.

▶특히 뉴잉글랜드 음악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처음 학교를 고를 때 음악 학교 TOP 10을 검색해 가야금으로 입학할 수 학교를 찾았다. 그 중 가야금으로 오디션을 볼 수 있었던 학교는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의 현대 즉흥음악과 (Contemporary Improvisation Department) 하나뿐이었다. 전에도 한국 교수님으로부터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를 추천 받은 바 있어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었다.

▶가야금 연주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떠한가?

다들 의외로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행복하다. 미국 친구들은 꼭 같이 연주해보고 싶다고 하고 실제로 많은 친구들과 이미 연주를 해봤다. 가야금과 서양 악기가 어우러졌을 때 음색이 부딪힐 수 있어 우려했지만 전혀 문제없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할 수 있어서 신기했다. 기사사 친구들과는 거의

매일 즉흥연주(Jam)을 하는데 친구들이 한국 장단을 아주 좋아한다. 한번은 자진모리 장단을 가르쳐줬는데 다들 잘 이해하고 상상 이상의 멋진 음악이 나왔다.

▶보스톤에 있는 동안 기대하는 바와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의 소리와 서양의 소리가 만났을 때 어떤 음악이 생길지 가장 궁금하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인 연주자, 작곡가들과 함께 다채로운 음악을 만들고 싶다. 여러 사람들과 한국음악의 장단과 음계, 그 속의 사상 등도 함께 공유하고 싶다.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 특히 색다른 시나위와 산조, 살풀이의 무용반주를 만들고 싶다. 현재는 만돌린에 관심이 많다. 꼭 배워보고 싶은 악기 중 하나다.

(한미예술협회 김유경 음악부장의 인터뷰 내용이 상당부분 인용되었다.)

오는 10월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현대 즉흥음악과에서 주최하는 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김도연은 이 공연에서 살풀이 춤과 가야금 앙상블을 선보일 계획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가야금 주자 김도연 서울대 국악과 수석 졸업 후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C) 석사과정으로 입학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1면에 이어서

두 중국계 하버드 동문이 만든 작품

총장에게 전화해 사정을 말했고 하버드 코퍼레이션이 소집되어 공중보건대학의 개명의 적절한 가격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하버드 코퍼레이션이 3억 5천만불의 기부 금액을 책정한 후 윌리엄은 제럴드를 접촉했다. 쟁은 하버드 코퍼레이션의 제안을 오래 숙고하지 않고 기부금에 동의했다.

파우스트 총장은 크립슨과의 인터뷰에서 “사상 최대의 금액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보답이라고 느꼈다” 고 밝혔다.

7월말 모든 협상은 끝났고 발표는 개학당 일인 9월 8일로 잡혔다. 제럴드 찬도 보스턴을 방문했다. 3억 5천만불의 사상 초유의 금

액 기부가 세상에 알려졌고 하버드 공중보건 대학원은 하버드 T.H. Chan 공중보건 대학으로 바뀌었다.

하버드는 지금껏 두 번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개명했다. 1639년 학교를 설립하며 최초의 기부자였던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고, 1966년 40세에 생을 마감한 존 F 케네디의 이름을 따서 공공정책 대학원의 이름을 케네디 스쿨로 바꿨다. 하버드 공중 보건대는 이제 찬 스쿨이 되었다.

이젠 개명에 대한 가격이 책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버드의 재무 폴 피니건은 “누군가 3억 5천만불 이상의 기부를 할 경우 개명을 전면 고려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개명의 의미보다 사상 초유의 액수에 의미를 두었다. 또한 하버드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진출을 꺼려하는 공공부분 봉사를 권장하는데 쓰일 수도 있는 등 학생들과 세상에 돌아가는 혜택에도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크립슨은 보도했다



하버드 코퍼레이션의 시니어 펠로우로 임명된 중국계 윌리엄 리씨

hsb@bostonkorea.com

법륜스님 ‘희망세상만들기’ “스스로가 행복과 희망의 주체가 되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오는 24일 오후 7시 하버드 대학에서 법륜스님의 해외순회 강연이 (희망세상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법륜스님의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개인이 삶의 주체가 되어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강연을 통해 “보스톤에서 공부하는 한인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희망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기회의 장이 되면 좋겠다” 고 행사 담당자는 전했다.

행사 전에는 법륜스님 북사인회가 있을 예정이며 신간도서를 돌려볼 기회도 주어진다.

이번 보스톤 강연은 세계 115개 릴레이 강연 중 30번째로 북미 주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강연이다. 유럽에서의 마지막 강연을 23일 더블린에서 마치고 이튿날 바로 보스톤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한 달에 한 번 법륜스님의 영상강좌를 듣는 모임이 하버드 대학 근처에서 열린다. 종교에 상관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보스톤열린법회(boston-jungto@gmail.com, 617-977-4227)로 연락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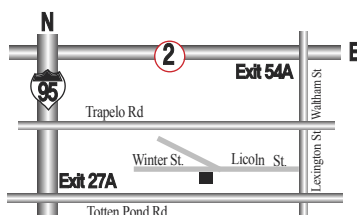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세탁인들, 경기 침체 극복이 가장 큰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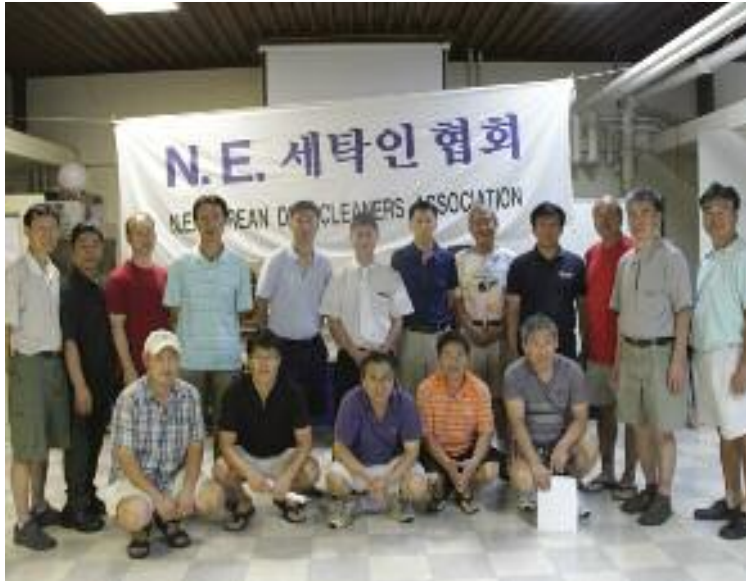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 6일 토요일 세탁인협회(회장 조은구)에 참여한 뉴잉글랜드의 한인 세탁인들은 정기 세미나보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상호협력 사업 안전에 대한 더욱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엔도버 소재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된 세탁인협회 주최 환경 세미나에는 20여명의 한인 세탁인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의 주 목적은 ERP 세미나였지만 모두의 관심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노하우에 있었다. 세미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명호 전 회장을 주축으로 20여년 전부터 제기해 온 단일브랜드화에 대한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단체 보험, 새로운 마케팅 방식 등의 다양한 상호협력 방안이 제기되었다.

세탁업체 간 상호협력은 여전히 논란이 큰 안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모임에서 다룰 것이라고 노명호 전 회장은 전했다.

이날 전반적인 환경세미나는 오는 15일까지 세탁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서티피케이션(2014 Compliance Certification for Dry



지난 6일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세탁인협회에 참여한 20여명의 한인 세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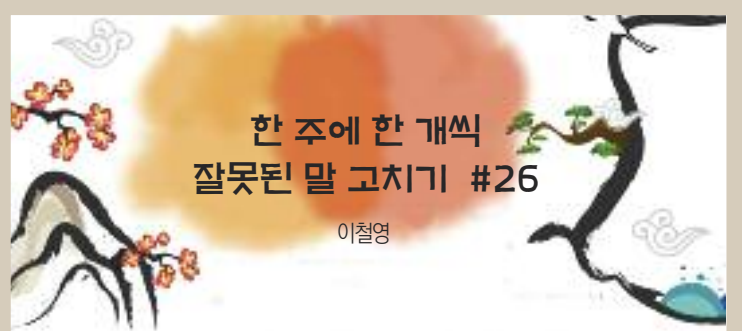
Cleaners)에 관한 설명회로 진행되었다.

오후 6시 반부터 열린 협회는 조은구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올해 강사로 초빙된 노명호 전 회장의 세미나로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서티피케이션의 각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규 세탁업자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서류"라며 조은구 회장 또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세탁인협회는 주정부 환경청 ERP 담당자인 폴 켈리(Paul Reilly)와 TUR(Toxic Use Reduction) 책임자인 수지 펙(Suzie Peck)을 초빙해 TUR 플래너 서티피케이션(TUR Planner Certification)과 솔벤트 사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추가적 문의사항이나 협력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조은구 회장(508-826-5270)에게 연락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18번 (X) -> 애창곡 (O), 대표곡(O)

"이 곡이 내 18번이야!"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 "18번"이라는 말은 일본의 전통 예술인 가부키(歌舞伎, かぶき. 모든 출연자가 남성이며 17세기에 발생)의 대본 18종에서 유래한 일본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일본 품물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말을 즐겨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간혹 왜 일본말이면 쓰지 말아

야 하는 거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일본말이면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어인 "테리야키"를 "테리야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뜻조차 감추어진 일본어가 어느새 우리의 생활 속에 침투해 속어가 되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잠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경우가 매우 다릅니다.

'애창곡'이나 '대표곡'이라는 우리식 표현을 써 보세요.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기사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bostonkorean@hotmail.com, 617-254-4654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 보스톤 콘서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유럽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있는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의 콘서트 가 오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캠브리지 소재 레가타바(Regattabar)에서 열린다.

현재 미주 투어 중인 나윤선은 이번 보스톤 공연에서 기존 음반의 레퍼토리와 한인 팬을 위한 아리랑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스톤 공연에 앞서 나윤선은 “재즈 뮤지션에게 보스톤이라는 도시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음악이 발달하고 역사가 깊은 도시만큼 유럽에서 활동하는 나의 음악이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 기대가 크다” 고 전했다.

보스톤 방문이 처음인 나윤선은 “이번에 보스톤과 사랑에 빠져서 미국 공연을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스톤을 가장 먼저 가고 싶어할지도 모르겠다” 며 보스톤 공연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이어 “한인 관객들이 공연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응원에 힘입어 더욱 분발하는 뮤지션이 되겠다” 고 밝혔다.

이미 유럽에서는 탄탄한 인지도를 쌓은 나윤선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의 콘서트가 오는 17일 캠브리지 레가타바(Regattabar)에서 열린다

취임식과 올해 소치올림픽 폐막식에서 노래하며 한국에서도 서서히 인지도를 높이는 중이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 재즈의 날’ 한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다.

14일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나윤선의 미주투어는 15, 16일 뉴욕의 ‘블루노트’ 를 거쳐 17일 보스톤으로 이어진다. 이번 투어는 유명한 스웨덴 출신 기타리스트 울프 바케니우스(Ulf Wakenius)와의 합동 공연으로

진행된다. 티켓은 한 사람당 \$28이며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다. 문의는 7000마일스(info@7000miles.com)으로 하면 된다.

티켓 구매 바로 가기 . (https://www.peltrix.com/get-showtix/rbar2012/purchase.cgi?id=3251)

dyoo9146@bostonkorea.com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 첫 가을연주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음악감독: 박진욱)의 2014-2015 시즌 첫 연주회가 하버드스퀘어에 위치한 퍼스트처치인 캠프리지(First Church in Cambridge)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쇤베르크 등의 레퍼토리로 진행된다.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의 다음 연주회 일정은 10월 5일 장수인 대표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한인 오케스트라를 성원하는 모두에게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들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을 음악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티켓은 행사 당일 구매 가능하며, 일반인 \$20, 시니어 \$10, 학생은 무료다. 티켓 문의는 sooih-nee@comcast.net 혹은 978-821-9434로 하면 된다.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사회문화

적 기여를 하고 젊은 한인 음악가에게 연주 의 장을 열어 후원하고자 2013년에 새롭게 창단된 한인 오케스트라다. 일년에 두 번 정기 연주회를 열며, ‘탈북난민 돕기 자선음악회’와 ‘한국정세 포럼 음악회’, ‘축복의 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음악회’ 등의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의 다음 연주회 일정은 10월 5일 로드아일랜드 브라운 대학 한인 학생회(KGSA)가 주최하는 브라운대학 250주년 기념연주회다. 이는 브라운 대학 그랜오프센터(Granoff Center in Brown University)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스톤 연주회 일정
일시: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First Church in Cambridge (11 Garden St., Cambridge, MA 02138)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단기미국연수, 영어보다는 문화와 경험에 집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단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많은 학생들이 이 기회를 빌어 미국 관광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원한다.

한울과 경기 침체로 어학연수생과 유학생의 수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실용적인 회화 학습에 투자하는 한국의 '트렌드' 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른다.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혹은 휴학을 결심하고 단기 어학연수의 길에 오른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보스톤의 대표적인 어학원은 카플란(KAPLAN), 이씨 (EC), 엠버시 (Embassy) 등이 있다. 실제로 이씨에서 공부하는 한국 어학원생은 전체 학생의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단기어학연수의 장점은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견문을 쌓고 영어 구술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원하는 실력까지 향상시키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만만하지 않은 학원비(6개월 과정 카플란 일반:\$8,100, 집중:\$8,900/ 이씨 \$8,640/ 엠버시 \$7,590)와 보스톤 거주비 및 생활비는 많은 어학연수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다.

카플란에 1년 과정으로 와서 7개월째에 접어든 손성호 학생(25)은 "단지 시험 점수를 올리려면 한국보다 좋은 곳이 없지만 외국인과 어울려 생활할 기회를 갖고 회화실력을 기를 생각을 하면 (미국에) 오기를 잘한 것 같다" 고 전했다. 이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한다. 영어 공부만 하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체로만 접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 스포츠를 많이 경험하고 몸소 즐기고 싶다" 고 더했다.

이씨에서 6개월 연수를 계획하고 온

임혜민 학생(22)은 "여행을 좋아해서 온 이유도 있다" 며 "어학연수를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게 되고 자립심을 얻는 것 같다" 고 단기 어학연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엘씨(ELC) 어학원에서 5개월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김진원(27) 학생은 "5개월이라는 기간은 내가 계획한 학업을 마치고 보스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 즐기고 가기에 적당한 것 같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카플란, 이씨, 엠버시 등의 어학원은 연령에 상관 없이 국제 유학생을 대상으로 각자의 레벨에 맞는 강의를 제공한다. 한 반에 학생은 열 명 내외로 작은 규모의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되며 일반 영어반에서 토플(TOEFL) 대비반 등 다양한 수업이 제공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이사철 반대 조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 8월 29일 금요일 보스톤위생단속국(Boston Inspectional Services Department)는 다운타운과 울스턴, 브라이언 지역을 집중적으로 시찰하며 아파트 현관과 버려진 가구에 '반대조심(Beware of Bed Bugs)' 스티커를 붙이는 등 빈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지난 9월 1일은 소위 말하는 보스톤 '무브인데이(Move-in Day)' 였다. 이는 도시 전체가 방을 옮기거나 새로 입주하는 학생들로 복잡복잡하여 붙은 명칭이다. 보스톤위생단속국에서 서둘러 스티커를 붙인 것은 이사 시즌이 닥치기 전 보스톤 생활의 복병 중 하나인 빈대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주기 위해서 였다.

빈대는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리면 흥터가 남거나 심하게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6개월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빈대 발견 시 반드시 빈대퇴치 업체를 부르거나 보스톤위생단속국에 신고해야 한다.

빈대는 사용하던 가구나 매트리스, 카펫 등에 빈대가 남아있기도 하며 이사하는 경로를 따라 빈대가 옮겨 다니기도 한다. 오렌지 색의 '반대조심' 스티커가 붙은 가구는 반드시 버려야 하며, 빈대가 발견된 세탁물은 절대로 세탁업체에 맡기면 안 된다.

특히 울스턴, 브라이언 지역은

빈대가 자주 출몰하기로 악명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빈대를 경계해야 하는 지역은 이 두 지역뿐만이 아니다. 보스톤위생단속국에서 보고한 바로는 다운타운 전역에서도 빈대 출몰 항의가 잦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철 가장 현저하게 보고된다고 한다.

현재 미국 22개의 주와 한 지역만이 빈대에 대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메사추세츠는 22개의 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보스톤 집주인 혹은 임대회사는 해당 주택에 출몰하는 빈대나 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빈대 출몰 보고는 다음 보스톤검사부 링크에서 하면 된다.

(http://mayors24.boston.gov/EF3/General.jsp?form=SSP_ISD_HO1121_BedBugs&page=SSP_Page_EmailEnterNoAnon)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 공고: 마운틴 제퍼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20일 토요일 보스톤산악회에서 마운틴 제퍼슨(Mt. Jefferson, 5716피트/오름 높이 2707피트)으로 정기산행을 간다.

산행은 각각 왕복 6.7마일과 5마일인 A와 B조로 나뉘어 가게 되며 산행 시간은 각각 5시간 30분과 5시간이다. 준비물은 배낭과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간편 중식이며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집결지는 울스턴 공영주차장(오전

6시)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6시 45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 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처음 산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문의 및 신청은 617-851-1883으로 하면 된다.

산행일: 2014년 9월 20일 토요일
집결지: 울스턴 공영주차장 오전 6시

Park&Ride, Exit2 of RT93 오전 6시 45분

bostonkorean@hotmail.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폭스 TV 홈 레노베이션 경쟁, 한인들 응원 열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폭스25(Fox25)에서 주최하는 집 레노베이션 콘테스트에 한인가정이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북부 보스톤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적극적인 투표에 나서서 등 응원 열기가 거세다. 폭스25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메사 추세츠 지역에 거주하는 미군 세 가정 중 하나를 뽑아 무료 주택 레노베이션을 실시한다. 그 중 하나인 미 공군 상사 션 트세이라(Shon Teixeira), 이숙연 가정은 현재 19.79%의 투표율로 많은 한인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혜택은 군인으로서 이행한 의무를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폐증 진단을 받은 4살짜리 아들 이든(Ethan)과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아내가 받아야 할 선물이어야 한다” 고 트세이라라는 에세이에서 밝혔다.

인터뷰와 에세이 형식을 통해 세 가

정이 뽑혔으며, 최종 당첨자는 9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여론 투표로 선택된다. 투표는 하루에 한번 할 수 있으며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

북부 보스톤 교회 한 관계자는 정말 열심히 사는 이 가정을 위해 많은 한인들이 투표로 격려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투표하러 바로 가기 (<http://www.myfoxboston.com/category/28384/mission-renovation>).

dyoo9146@bostonkorea.com



폭스 25에서 주최하는 집 레노베이션 콘테스트 최종 후보에 오른 션트세이라 가정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뜻 깊은 가을 야외미사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성 앙투안 다블뤼 한인천주교회(주임신부 정광호 도미니꼬)는 지난 7일 일요일 피치버그(Fitchburg)의 사이마 공원(The Finnish Center at Saima Park)에서 가을 야외미사를 가졌다.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미사는 추석을 맞이하여 위령미사로 진행되었으며 정광호 도미니꼬 본당

신부가 집전하였다. 미사 후에는 모두가 준비해온 푸짐한 음식을 나누며 이후에는 단체게임을 즐기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정광호 도미니꼬 신부는 이날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한 사목회, 성모회, 각 구역모임과 청년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한인천주교회에서 주최한 가을 야외미사에 참여한 250여명의 신자들

우스터장로교회 창립예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21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우스터(Worcester) 지역에 새로 창립한 우스터장로교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orcester, 담임: 흥원철 목사)가 첫 예배를 드린다.

장로회(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뉴잉글랜드 노회 목회자로서 고든콘웰(Gordon-Conwell) 신학교를 졸업한 후 보스톤의 늘푸른교회에서 14년간 담임목회를 했다.

담임목사로 부임한 흥원철 목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우스터장로교회의 힘찬 출발을 통해 우스터 지역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있길 소망해 본다” 며 기대의 뜻을 전했다.

흥원철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

교회주소: 73 Lancaster Street, Worcester, MA 01609
연락처: 흥원철 목사(781-354-1843, evergreenwon@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앰허스트 한국 학교 설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앰허스트에 새로 설립된 앰허스트 한국 학교(Korea in Amherst)가 12일 금요일에 개강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앰허스트 한국 학교는 연간 2학기제, 학기 별 16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입생은 유치부부터 중학생까지 모집한다. 유치부는 한글과 음악, 미술을 배우며 초등부는 국어와 수학, 사회를 공

부하게 된다.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마스터 스테이션 운영을 통한 보조 학습이 제공된다.

수업 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koreainamherst@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개강 일시: 2014년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장소: 와일드우드 초등학교 카페테리아(Cafeteria at Wildwood Elementary School), 71 Strong Street, Amherst, MA 01002
신입생 및 자원봉사자 접수처: koreanamherst@gmail.com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명시)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하버드 케네디스쿨 및 의대 학생들 북한 바로 알기 컨퍼런스 주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오는 13일 토요일 하버드 케네디스쿨 북한스터디그룹(DPRK Study Group) 학생들과 의대 학생회(Students for Global Health)에서 주최하는 북한컨퍼런스(2014 Student Conference on the DPRK)가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다.

“어떻게 국제 사회가 북한과 효과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테마로 개최되는 이 컨퍼런스에는 북한의 경제와 인권,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초빙되어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전 유엔 상주조정관(UN Resident Coordinator in the DPRK) 제롬 소비자와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 프레드리히 뢰어(Friedrich Lohr) 등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들이 강연대에 선다.

이 컨퍼런스를 후원하는 인게이지코리아(Engage Korea)는 인도적,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학생단체로서 북한과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 며 인게이지코리아의 홍보실장 셰리 테몰렌(Sherri L. Ter Molen)이 전했다.

인게이지코리아는 첫 북한컨퍼런스

를 작년 5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주최한 바 있다.

작년 8월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생들을 주축으로 25명의 학생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올해 3월에는 40여명의 공공정책,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법학, 의학 실무진과 학생들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가 밝혔다. 이는 하버드 대학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이날 북한컨퍼런스에는 학생과 교수진이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북한컨퍼런스 웹사이트(www.2014studentconferenced-prk.org)에서 찾을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이태호)가 한선우 교우 자택에서 2014-2015년 첫 모임을 가진다.

이번 교우회 모임에서는 신입 회원 환영과 기존 회원의 친목 도모 시간을 가지며 1년 사업계획에 대한 소개와 토의를 할 예정이다.

이태호 회장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고대 교우들을 2014-2015년 첫 모임에 가족과 함께 초대한다”

고 말하며 “교우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교우회 임원에게 꼭 연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소 및 교통 문의는 이태호(tlee0813@hotmail.com, 617-780-2999), 김재철(jaeck79@gmail.com, 617-455-7649)로 하면 된다.

일시: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한선우 교우 자택

bostonkorean@hotmail.com

퀸지한국학교 개강 “우리문화를 알리고 싶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오는 13일 토요일 퀸지(Quincy)에 위치한 퀸지한국학교(교장 박찬희)가 개강을 한다.

10년 이상 한국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지도하던 박찬희 교사가 새롭게 퀸지한국학교의 교장업무에 맡게 되었다. 함께하는 퀸지한국학교의 교사진으로는 김세영, 김신희, 김정은, 이지영, 이정숙, 이상윤, 이학재(태권도), 마리아정(붓글씨), 백진환(노래교실), 최연식(웹 담당)이 있다.

박찬희 교장은 “미국 문화에 젖어있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고 퀸지한국학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퀸지한국학교는 매주 토요일 9

시 10분에 수업이 시작하며 12시 30분까지 정규 한국어 수업과 붓글씨, 음악반 등이 진행된다. 이후 방과 후 학습으로 다양한 문화교실이 제공되는데 태권도, 동양화, 한국 무용(장구 소고, 삼북 부채춤), 가야금(개설을 위해 진행 중) 등이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입양인, 외국인들을 위한 이중언어 수업도 제공된다.

모집대상: 4세 이상 누구나 환영
개강 일시: 2014년 9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10분

장소: 퀸지영생장로교회 (270 Frankline Street, Quincy, MA 02169)

연락처: 781-248-8652/ jpkoreanandance@gmail.com

dyoo9146@bostonkorea.com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골프대회, 친목의 시간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조진행)가 주최한 골프대회가 지난 6일 토요일 스토크우 에이크스 컨트리 클럽(Stow Acres Country Club)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골프대회는 임원진을 포함한 2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진행 회장은 “긋은 날씨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예년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참석자들간에 더 많은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이 되었고 특히 골프 라운딩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즐거운 소재 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고 전했다.

오는 11월 과학기술자협회와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와 공동주최하는 커리어 개발 워크샵(Career Development Workshop)이 열릴 예정이다.

후원기관

SK, The MEME, 크롬 워크스(ChromWorks), 트윈 시티 동물병원(Twin City Animal Hospital)

수상자

그랜드챔피언: 장영규(Stroke: +6 over)
챔 피 언 : 성진욱(Adjusted score after handi: -6 under)
장타상 (Longest):

이현희
근접상(Closest): 류훈
오늘의 선수(Player of the Day): 김도영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6일에 열린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골프대회에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민주당은 선거 후 불안해 하는 유권자 단속을 위해 경쟁자들을 초청, 마사 코클리 지지하는 전략을 선보였다.

마사 코클리 신승 본선 경쟁력에 의문

민주당 주지사 후보 선출 그러나 베이커와의 대결 불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마사 코클리 법무장관이 9월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스티브 그로스맨을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보스톤 주요 언론들은 그녀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마사 코클리 후보는 42%를 득표해 36%와 21%를 득표하며 선전한 스티브 그로스맨 후보와 돈 버워 후보를 제쳤다. 마사 코클리의 그로스맨과 득표차는 겨우 6포인트에 불과해 불과 2주전 보스톤 글로브 여론조사에서 20%차이로 앞서가던 것을 감안하면 불안하기 그지 없다.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2010년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번 예비선거의 표차는 지난 2010년 스캇 브라운에게 역전당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테드 케네디 연방 상원석을 공화당에 내주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전략가들은 벌써부터 마사 코클리가 공화당 찰리 베이커 후보와의 본선에서 우위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보스톤글로브의 스캇 레이히 칼럼니스트는 그의 칼럼에서 적은 표차의 승리가 그녀의 본선 경쟁력에 의심이 들게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스캇 레이히는 마사 코클리는 예비선거에서 주지사로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 보다는 자신이 법무장관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일을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고 지적하고 본선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레이히는 코클리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구체적인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 보다는 “살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코클리의 과제는 가장 먼저 그동안 스티브 그로스맨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 민주당 유권자들은 선거전 그로스맨이 탈락하면 코클리를 선택하기 보다는 차라리 찰리 베이커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선거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불안함이 노출됐다. 마사 코클리는 그동안 찰리 베이커와의 가상대결에서 넉넉한 표차로 우세를 점해왔지만 막판에는 오히려 1%차이로 뒤지는 결과를 냈다.

마사 코클리가 2010년의 패배를 되풀이 할지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중요 정치인으로 등장할 것인지 향후 선거운동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불안한 코클리, 빠른 집토끼 단속 행보

당선 다음날 아침 조찬 모임, 스티브 그로스맨과 도널드 버워 지지 표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민주당 예비선거에 당선된 마사 코클리가 당선 다음날 경쟁후보들과 조찬을 가지며 집토끼 단속에 서둘러 나섰다.

선거후 열린 단합조찬에서 어제까지 경쟁했던 후보는 농담을 주고 받았고 후보로 선정된 마사 코클리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도널드 버워 후보는 코클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천명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사회정의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티브 그로스맨은 자신들의 유권자들에게 올 11월 마사 코클리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월 여론

“우리 중 누가 나서도 공화당 찰리 베이커보다는 나은 후보” - 마사 코클리 -

조사에서 그로스맨 지지자들은 그가 탈락하는 경우 베이커로 크로스 보팅을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그로스맨은 드벌 패트릭의 지난 업적을 칭찬하고 마사 코클리가 바로 적합한 후계자라고 강조했다.

코클리는 경쟁 후보들의 지지선언에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우리 중 누가 나서도 공화당 찰리 베이커보다는 나은 후보” 라며 드벌 패트릭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

히 그녀는 경제적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찬은 실제로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클리가 근소한 차이로 예비선거를 이끈 후 제기된 위기론을 잠재우고 빨리 민주당 후보인 마사 코클리를 중심으로 단합해 승리를 이끌고자 하는 민주당의 발빠른 조치였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베이커가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든지 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공화당 후보들이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규제 완화, 의료보험 비용 축소 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이루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주지사 마사 코클리와 찰리 베이커 대결로 압축

9월 9일 예비선거 결과, 동양계 를랜드 정은 탈락, 민주당 하원 9선 의원 정치 초보 몰튼에게 충격적 패배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마사 코클리와 찰리 베이커 후보가 당선 파티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11월 주지사로 선출된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는 11월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민주당 마사 코클리 또는 공화당 찰리 베이커의 대결로 압축이 됐다.

마사 코클리는 9일 스티브 그로스먼을 따돌리고 42%를 득표하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으며 찰리 베이커는 74%를 득표해 마크 피셔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다.

여성의 권리와 게이 권리에 대해 전향적으로 찬성하지만 재정적으로 보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자 찰리 베이커는 강경보수의 상징인 티

파티 후보인 마크 피셔를 가볍게 뿌리치고 코클리와 한판을 벌이고 있다. 코클리와 베이커는 박빙의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유권자들은 같은 날 민주당 9선 연방 하원의원인 존 티어니를 대신해 해병대 출신의 정치 신참 시스 몰튼을 선택하는 이번을 연출했다. 또한 빅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법무장관 선거에서도 민주당 유권자들은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베테랑 워렌 툴먼이 아닌 모라 힐리를 24.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선호, 민주당 법무장관 후보로 선출했다.

워렌 툴먼은 드벌 패트릭은 물론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의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조 지도자들의 지지도 확보하고 있었지만 투표율이 저조한 이번 예비선거에서 충분한 득표에 실패했다.

중국어 아시아안 후보 를랜드 정이 출전해 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부주지사 선거에서는 스티븐 케리건이 50.8%를 득표해 29.3%에 그친 를랜드 정을 따돌리고 민주당 부주지사 후보로 낙점됐다.

hsb@bostonkorea.com

부주지사(Lieutenant Governor)		
이름	표	퍼센트
케리건	221,583	50.8%
정	128,352	29.4
레이크	86,037	19.7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이름	표	퍼센트
힐리	321,264	62.2%
툴먼	194,844	37.8

미 하원 6지역구		
이름	표	퍼센트
몰튼	34,455	49.3%
티어니	28,882	41.4
드프랭코	4,282	6.1
드바인	1,525	2.2
거타	687	1.0

미들섹스 지역 검사		
이름	표	퍼센트
라이언	73,123	57.3%
설리번	54,425	42.7

재무장관 Treasurer		
이름	표	퍼센트
골드버그	202,077	42.7%
파인골드	149,188	31.5
콘로이	121,802	25.7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8월 13일(수) 방송



치매와 노화막는 홍삼의 효능과 오해

(홍삼효능) 전문가 인터뷰

“홍삼은 항산화성분이 다량 함유, 치매 예방은 물론 노화방지와 장수에 효과”

“홍삼의 페놀과 폴리사세틸렌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홍삼은 면역력 높이고, 항암 및 항염효과 탁월”



열 많은 체질은 홍삼을 먹으면 안된다?

열 많은 사람은 홍삼이 안 맞는다는 말은 속설이며 홍삼을 복용하면 신진대사 촉진으로 인해 체온이 상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홍삼이 체온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대광고를 하는 건강식품에 주의하시고 114년 전통의 정관장 제품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홍삼정 에브리타임

전화주문
서비스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대학 노트 필기, 온라인서 사고 판다

벤처 기업 플래시노츠(Flashnotes) 웹사이트에서 판매...교육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만약 전과목에서 A를 받는 대학생이 자신이 직접 필기한 노트를 인터넷상에서 판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스톤에 위치한 출판사와 벤처 기업이 손을 잡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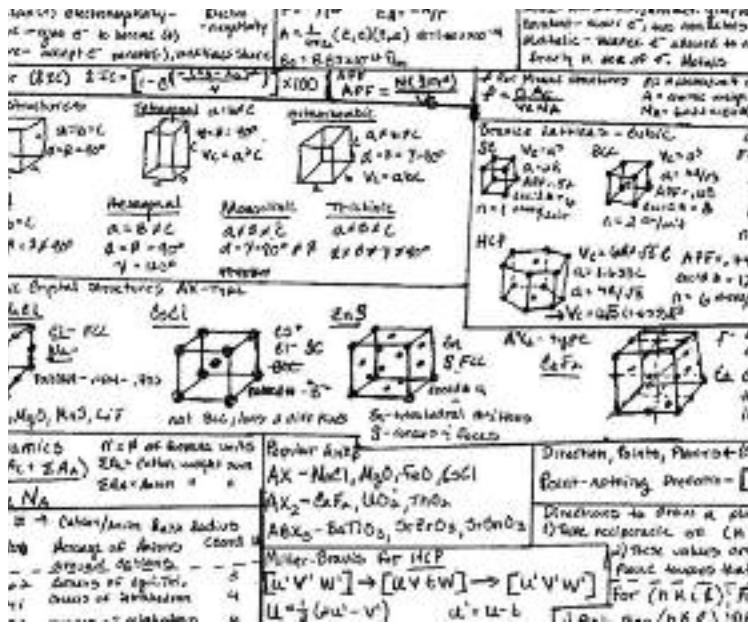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 센게이지 러닝(Cengage Learning)은 학생들이 노트 필기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 혹은 동영상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구상해 왔다. 센게이지의 자본과 아이디어는 보스톤의 테크놀로지 벤처 기업 플래시노츠(Flashnotes)와 결합하여 현실화 되었다.

플래시노츠는 웹사이트를 통해 900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수업 자료를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온라인 비즈니스는 이미 사업 가치를 인정 받아 6백만 달러 이상의 벤처 펀딩을 받았다.

센게이지의 마이클 헨슨 최고경영자는 “우리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생각하며 조사하던 중 플래시노츠를 발견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었다” 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노트 필기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정행위와 협력의 경계가 모호한데다가 대학 교육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난 2012년에 125명의 학생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 기말고사를 집에서 보는 테이크홈 테스트를 쳤는데, 학생들의 답안지가 너무 비



플래시노츠에서는 대학생들이 노트 필기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위의 노트 내용은 플래시 노츠에서 팔리고 있는 한 노트 필기

교수가 직접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과목과 관련 학생들이 판매하는 수업 자료를 사전에 체크토록 개선

슷했던 것이다. 조사 결과 하버드 대학은 답안지가 너무 똑같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을 낙제 처리했다.

센게이지는 기존의 플래시노츠를 보완하여 해당 과목의 교수가 학생들이 노트 필기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교수가 직접 수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과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인

터넷으로 판매하는 모든 수업 자료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센게이지의 새로운 웹사이트 마인드탭(MindTap)은 현재 일부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다. 센게이지는 내년 1월까지 개발을 마치고 마인드탭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플래시노츠 웹사이트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노트 필기나 수업 자료를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트 필기는 10달러 이하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자료는 몇십 달러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는 것도 있다. 판매 가격의 70%를 자료를 올린 학생이 가져가고 센게이지와 플래시노츠가 30%를 가져가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시 첨단 감시 기능에 65만 달러 사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시가 작년 5월 시청 광장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서 65만 달러를 들여 감시 시스템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첨단 감시 소프트웨어는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는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스톤 시 대변인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시스템이 앞으로 사전 공지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는 감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거리에 설치된 CCTV로부터 화면을 전송 받아 사용이 금지된 가방을 즉각 경찰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부터, 사람들을 체형과 피부색에 따라 분류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인종과 다른 특징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개인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보스톤 시는 개인 기록을 추적하는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감시 기능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심각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jsi@bostonkorea.com



작년에 보스톤 시청 광장에서 열린 보스톤 콜링 뮤직 페스티벌에 첨단 감시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 탐 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나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 23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BEDFORD 지역 단독주택

\$619,000, 3 BEDS, 2 BATHS, 2,010 SF, 1.3 Acre Lot Siz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정원, 안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하버드 2년 연속 2위, 노스이스턴 도약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에 밀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내 대학 순위 2위를 차지했다. 노스이스턴 대학은 비약적인 도약을 하며 BU와 나란히 4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오랫동안 대학을 평가해온 잡지 'US 뉴스 & 월드리포트'는 9월 미국의 1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성적과 지원경쟁률, 졸업률, 평판도, 학교 재정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종합대학 부문에서 프린스턴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하버드는 2위, 예일대 3위 그리고 3

위는 컬럼비아와 스탠퍼드, 시카고 대학은 나란히 공동 4위를 기록했다. MIT가 7위, 듀크대학과 유펜이 공동 8위, 칼텍이 10위를 차지하며 10위권 안의 큰 순위변동은 없었다.

또한 학부 중심 리버럴아트 대학 분야에서는 매사추세츠 윌리엄스와 엠허스트가 6년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했고 또한 매사추세츠 소재 여대인 웰슬리 칼리지가 4위를 차지했다. 공립 학부중심대학 분야에서는 미국의 해군·육군·공군 사관학교가 나란히 1~3위에 올랐다.

매사추세츠 주 내에 있는 텡스

(Tufts) 대학은 지난해와 같은 27위, 보스톤칼리지(BC)는 31위, 브랜다이스는 35위를 차지했다. 한편 BU와 노스이스턴대는 나란히 42위를 차지했다.

특히 노스이스턴대학의 약진은 화제를 낳고 있다. 노스이스턴은 1996년 162위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도약이란 단어가 안성맞춤이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했던 리차드 프리랜드 학장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10년 사이 60계단을 올라섰고 이후 다시 8년여 세월동안 60계단을 뛰어넘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찰스강 수질 측정이래 가장 깨끗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환경보호청(EPA)은 찰스강의 수질이 199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깨끗한 상태라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찰스강 하천유역 협회가 수영과 보트타기 가능 여부를 판단기 위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찰스강은 A-등급을 받았다. 미 환경보호청은 96점의 보트타기 점수와 70의 수영 점수를 부여했다. 이는 96%의 경우 보트타기가 안전하며 70%는 수영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찰스강이 여전히 수영과 보트타기 등 수상 스포츠에는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지난 1995년 각각 39, 15%였던 것에 비하면 괄목상대한 상태다.

찰스강의 수질이 개선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1972년 클린워터법을 제정해 오염을 찰스강에 투척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찰스강 오염의 주된 원인은 하수도관을 빗물처리관에 연결해 이것이 찰스강에 유입된 것에 있었다.

보스톤시는 여전히 하수도가 찰스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가고 있다. 보스톤 상하수도 위원회는 2013년 빗물처리관이 불법으로 찰스강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거해 2백 70만 갤런의 물이 찰스강에 유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환경청의 에밀리 짐머만 대변인은 "무엇이 찰스강을 오염시키는지에 대해 만연 연구와 수질 검사를 해왔다"며 수질 개선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찰스강에서 블랙 크라운드 헨런이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다



베일 벗은 '애플워치'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애플의 첫 번째 웨어러블 스마트기기인 '애플워치'가 베일을 벗었다. 애플워치는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349달러부터 시작한다.

애플은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플린트센터에 열린 미디어 행사를 통해 아이폰6+와 함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애플워치'를 공개했다. 이날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는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행사장 무대에 올랐다.

동근 모서리의 사각형 모양인 애플워치에는 사파이어글라스가 탑재됐다. 깨지거나 흠집이 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이 까다로우양산에 어려움이 있다.

◇세로 38*42mm 두가지 크기에 세가지 컬러로 출시

애플워치는 세로 38mm와 42mm의 두 가지 크기로 기능과 용도에 따라 워치·스포츠·에디션 등 3가지 컬러로 나뉘어 출시된다. 워치컬렉션은 스테인리스 스틸(실버)와 스페이스 블랙 등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시계의 끈에 해당하는 스트랩은 링크 브레이슬릿과 밀레니즈 루프, 가죽형 모던 버클, 가죽 루프, 클래식 버클 등 총 6가지다.

◇아이폰5 이상 제품과 연동 가능·피트니스에 애플페이드 가능

애플워치에는 터치스크린이 적

용됐지만 우측에 달린 시계 용두 모양의 '디지털 크라운'을 통해서도 메뉴 선택과 애플리케이션 실행 등의 조작이 가능하다. 애플은 디지털 크라운에 대해 "마우스의 휠과 같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워치는 아이폰5 이상 제품에 선 모두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으로 오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메일, 알림 등을 애플워치로 모두 받아볼 수 있다. 아이폰의 지도, 패스북, 캘린더, 사진, 음악 등의 기본 앱들도 애플워치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일정을 확인하고 간단한 문자메시지 답장, 내장 스피커를 통한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애플의 음성인식 서비스인 시리(Siri)도 지원된다.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의 모습이 애플워치로 담겨 손쉬운 촬영도 할 수 있다.

애플에 따르면 애플워치에는 GPS와 심장박동 센서가 탑재돼 아이폰과 연동해 운동량, 칼로리 소모 등을 알려주는 피트니스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자카드 등과 협력해 이날 애플이 처음으로 공개한 전자결제서비스인 '애플페이'도 애플워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sho218@news1.kr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스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메모리얼 병원 재활학과 수석비서
위상원 다지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와재 교수
상원대학교 와재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장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법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오바마, "IS 숨을 곳 없다, 끝까지 추격 파괴"

시리아로 공습 확대, 추가 파병 등 IS 격퇴 전략 공개

(워싱턴=로이터) 정이나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급진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소탕을 위해 시리아 공습을 처음으로 승인하고 군사 작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IS를 겨냥한 공습이 진행 중인 이라크에도 병력을 추가 파견하는 한편 공습을 시리아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테러 발생 1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IS 근거지인 시리아에 대한 공습 등의 내용이 담긴 IS 격퇴전략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바로 포괄적면서 지속적인 대테러 전략을 통해 ISIL을 약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파괴(destory)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칼리프국가를 선언한 IS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ISIL(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약어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 조국을 위협하는 테러범들은 어디든지 추격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왔다. 이라크는 물론 시리아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IS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나의 핵심 원칙은 미국을 위협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숨을 곳(safe haven)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에 대항하기 위한 평형추(counterweight) 역할을 할 시리아 온건 반군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훈련과 장비 지원에 필요한 추가 권한과 재정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와의 투쟁에 있어 이미 합법성을 잃은 아사드(시리아)정권에 기댈 수는 없다"며 IS를 뿌리뽑기 위해 "광범위한 연합체 구성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게 될 다국적 연합군에 동참하게 될 국가나 구체적인 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급진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1일 이집트, 요르단, 터키, 걸프아랍 6개국 외무장관들과 사우디에서 회동하고 IS 격퇴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국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회의를 주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아울러 현재 미군 병력 약 1000명이 파견된 이라크에 475명을 추가로 파병하고 IS를 겨냥한 공습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이라크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임무를 완수했고 이라크 새 정부도 출범한 만큼 475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며 "이라크 정부와 협력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라크 정부군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동안 우리도 IS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작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서도 말했듯 미군 병력을 전투 임무에 투입하지는 않겠다"며 "이라크에서 또 다른 지상전에 끌려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그러면서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에 훈련, 첩보,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8일 이라크에서 IS에 대한 제한적 공습에 돌입할 때만 해도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을 지원하는 수준에 초점을 맞췄었다.

그러나 약 2주 간격으로 미국인 기자 2명이 IS에 잠수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IS에 대한 강경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IS 대응을 위한 시리아 공습 여부에 대해 "구체적 전략이 없다"고 말했다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IS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전쟁으로 얼룩진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유와 정의, 존엄성을 옹호하겠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lchung@news1.kr

"미국인 3분의2, IS 공격이 美 국익에 부합"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3분의 2에 가까운 미국인이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군사행동이 국익이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현지시간) 나왔다.

IS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응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의 이번 공동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IS에 대한 군사행동이 미국에 유익할 것이라고 답했다. 충분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으며 그렇지 않다가 13%, 잘 모르겠다가

2%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비판한 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군사행동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응답률은 매우 높은 수치이다.

공격방법에 대해서는 공습과 함께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34%를 기록해 공습만 해야 한다는 응답률 40%에 크게 뒤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 부터 IS에 대해 미온하게

대응했다며 질타를 받아온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 또한 40%로 떨어졌다.

9.11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 보다 더 안전한 상태라고 느끼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7%가 더 불안해졌다고 답했다. 더 안전해졌다는 응답과 똑같은다는 응답은 모두 26%였다.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응답이 45%로 민주당이 장악해야 한다는 43%보다 2%p 높게 나타났다.

잡스도 자녀에겐 컴퓨터 안돼 미 기업주들 집에서선 금지령

하루 30분, 주말사용 등 제한...테크놀로지 위험 알기 때문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자녀들은 '컴퓨터 중독'이었을까. "아니다"가 정답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잡스가 자녀들의 컴퓨터 사용을 집에서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 중에는 컴퓨터, 스마트폰의 폐해를 스스로 일찍 체험하고 자녀에게는 '접근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잡스는 애플의 아이패드가 처음 출시됐던 지난 2010년말 한 기자로부터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이들은 써본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잡스는 이어 "집에서는 아이들의 (첨단) 기술 사용을 어느 정도는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잡스의 공식 전기를 집필했던 월터 아이작슨도 "스티브는 저녁이면 부엌에 있는 길고 커다란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책, 역사, 그 외에 여러 가지 화제를 놓고 얘기했다"면서 "아무도 아이패드나 컴퓨터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았다. 아이들은 모든 기기에 중독된 것 같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NYT는 기술기업이나 벤처기업가들 중에는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에는 어떠한 기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말에만 일정 시간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무인비행기 제조사인 '3D 로보틱스'의 크리스 앤더슨 대표는 시간제한을 설정했으며,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사용을 '감시'한다.

그는 "아이들은 나를 파시스트라며 걱정이 지나치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위험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위험'이란 인터넷을 통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사이버 왕따'를 당하는 것, 또는 부모 세대처럼 컴퓨터에 중독되는 것이다. uni@yna.co.kr

미 공습확대 독 불참 선언 영,불은 '저울질'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이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으로 추진 중인 시리아 공습 계획에 독일은 불참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법적 기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은 공습 참여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요청받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이날 앞서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과 회동했다.

해먼드 장관도 IS 타도를 위한

미국의 국제적 세력 규합을 지지하지만, 시리아 공습에는 가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공습과 관련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혀 참여 여지를 남겨뒀다.

프랑스는 이라크 공습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시리아의 경우에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전날 "이라크 정부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리아에서는 국제법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uni@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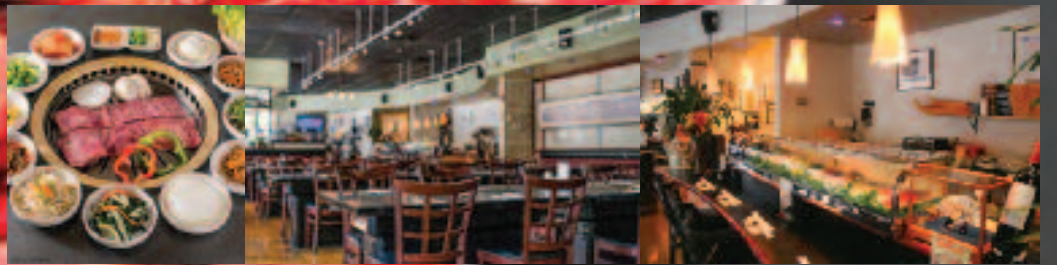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집권 2년차 박 대통령 지지율의 '변곡점들'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좀처럼 '세월호 참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박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5%를 기록했다. 이전 5주 동안 1%포인트 이내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정평가도 45%를 기록,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장관회의' '독일 드레스덴 평화통일 3대 구상' 등을 쏟아내며 60%안팎의 지지율 속에서 국정에 강한 탄력을 받았었다.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으로 느낄정도다.

◆4월 첫째 주,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 '만조기'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월 첫째 주 박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는 61%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 집권 2년차 1분기를 마친 시점을 비교해 볼 때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 3월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7시간이 넘는 '끝장토론'으로 이끌며 직접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강력한 인상을 국민에

게 남겼고, 이어 네덜란드, 독일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데 이어,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평화통일 3대 구상'을 발표, 통일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 점이 강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부정평가는 28%에 불과해 집권 2년차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진보성향'을 보여온 30, 40대 긍정률이 부정평가를 앞서며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靑 컨트롤타워 논란, 문창극 사퇴 '삼각파도'에 민심표류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의 시선은 곧바로 청와대로 향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17일 박 대통령은 진도 사고현장을 방문했고, 민심은 초유의 해난사고를 해결하려는 박 대통령에 의지하며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사고발생 이틀 뒤인 1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박 대통령 지지도는 여전히 59%로 고공행진 중이었고, 한국갤럽은 사태의 중대함을 고려해 4월 4주차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선언, 2주간 여론조사 '블랙아웃'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4월 23일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개인 트윗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8일 71%로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 이날 56.5%로 14.5%p 급락하고 있음을 전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 찬물을 끼얹은 것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기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논란'이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는 안보, 통일, 정보, 국방의 컨트롤타워이지 자연재해 같이 것이 님을 때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실장의 발언으로 세월호사고 수습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급부상하면서 민심은 크게 동요했다.

결국 한국갤럽은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전 59%에서 4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부정평가 비율도 2주전 28%에서 40%로 급등세를 보였다. 30대의 부정평가율이 61%로 상승하며 박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탈했고, 일주일 뒤 40대 또한 부정평가율이 50%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러던 중 6월 셋째 주에 박 대통령 지지율에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전주대비 4%p 하락하고, 부정평가율이 5%p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명절을 하루 앞둔 9월 5일 서울 답십리 현대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덕담을 나누고 있다

급등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율이 긍정률을 앞지른 것이다.

원인은 6월 15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질 논란' 속에서 사퇴를 발표하면서,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 등에 따른 인사난맥이 민심이반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8월 첫째 주까지 6주간 지속됐고, 취임 이후 최저 주간 지지율인 40%를 세 차례 기록했다.

◆7.30 재보궐 선거 여당 압승, 국정

안정 기대감에 민심회복 중

8월 첫째 주에 들어서면서 7.30 재보궐 선거 여당 압승에 힘입어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률이 부정평가를 다시 앞서기 시작했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반기 첫 달인 7월부터 경제살리기와 민생행보에 집중하면서 국정안정론에 힘을 실었던 부분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birakoca@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SEP. 12, 2014 - SEP. 18,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하마트 MA 진출 5주년 기념
 고객 감사 경품 대축제
5TH ANNIVERSARY SWEEPSTAKES!
 CELEBRATE 5 YEARS OF HMART IN MASSACHUSETTS



SEP. 12TH - OCT. 5TH, 2014 AT ALL MA HMART STORES
 하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경품 대축제에 참여하세요! (스마트카드 고객에 한함)
 Hmart is celebrating its 5th year of business in the state of MA with special sweepstakes event. Get a chance to win Hmart gift certificate when you shop with your Hmart Smart Card! Simply fill ou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 and insert into our special bin!

DRAWING DATE : OCTOBER 5TH, 2014 AT 5PM

1ST PRIZE (1 WINNER): \$1,000 HMART GIFT CERTIFICATE
2ND PRIZE (5 WINNERS): \$300 HMART GIFT CERTIFICATE
3RD PRIZE (10 WINNERS): \$100 HMART GIFT CERTIFICATE

* In order to give the most customers a chance to win, there will be no duplicate winners. (If you win a prize at both stores, Cambridge & Burlington, you will receive the higher prize.)

THE 32ND YEAR CELEBRATION

하마트 32주년 감사세일

SINCE 1982

8-12's Headless Black Tiger Shrimp
 머리없는 블랙 타이거 새우

\$18.99
 lb.

ZOJIRUSHI Micom Elec. Dispensing Pot
 조지루시 전기 포트
 CD-LCC50WZ/0.5/ea.

\$144.99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7.99
 lb.

Fuji Apple 후지 사과

\$1.79
 lb.

SAM SU GAB SAN Brown Sweet Rice
 삼수갑산 현미참쌀

\$15.99
 15 lbs.

CHUNGJUNGONE Persimmon Vinegar
 청정원 감식초 16.9fl.oz.

\$7.99

<p>Ginger 생강 lb. \$1.69</p>	<p>Scallion 파 3/bun. \$1</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79</p>	<p>Radish 무 box \$16.99</p>
<p>Cornish Hen 냉동 영계 lb. \$2.49</p>	<p>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lb. \$1.29</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돼지 발집 목살 스테이크 lb. \$4.99</p>	<p>Uni 성게알 (우니) 2.11oz./pkg. \$6.99</p>
<p>Unagi Kabayaki 우나기 8oz./pkg. \$7.99</p>	<p>TONGTONGBAY Premium Oyster 통통배 청정생굴 8oz./pkg. \$3.49</p>	<p>SAM SU GAB SAN Brown Rice 삼수갑산 현미 15 lbs. \$9.99</p>	<p>SEMPIO Red Pepper Paste 선표 태양초 우리쌀 고추장 6.17 lbs. \$9.99</p>
<p>CHUNGJUNGONE Grapeseed Oil 청정원 참맞고운 포도씨유 30.4fl.oz. \$9.99</p>	<p>해오름 누구나 유부박사 HAIOREUM Fried Soybean Curd 5.7oz. \$1.99</p>	<p>PENGUIN Canned Mackerel Pike 펄린 꽁지 통조림 14.1oz. \$1.99</p>	<p>HAIOREUM Soy Soy Delicious Soymilk 해오름 쏘이쑤이 델리서스 두유 All Flavors/ 6.76fl.oz. x 24ea./pkg. \$9.99</p>
<p>ORION Oi Karto 오리온 외 감자 Original/Chili Chili 4.05oz. \$3.99</p>	<p>스팸 HORMEL FOODS Spam Classic/Lite/25% Less Sodium - 12oz. \$2.69</p>	<p>ESBENSHADE FARMS Grade A Large Eggs 에스벤셰이드 팜 라지 달걀 18cnt./pkg. \$2.49</p>	<p>VISIONS Glass Pot 비전 유리 내열 냄비 2.25L/ea. \$39.99</p>
			<p>HELLO HOME Elec. Grill 헬로홈 전기 그릴 KYS-868A/ea. \$29.99</p>

New HAIOREUM Product Launch!

RADISH WRAPS

ARE THE NEW LETTUCE WRAPS!

고기와 함께 먹는 새콤, 달콤, 아삭한 맛! 상큼하고 맛있는 해오름 쌈무 출시!

HAIOREUM

여 "세월호법 외 법안 분리 처리"...정의장,야당 동시 압박

"주말까지 합의 안되면 15일 이후 본회의 열고 직권상정 결단해야"

(서울=뉴스1) 진성훈, 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은 11일 교착 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일반 법안들을 분리 처리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주말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열어 일반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모든 재량권을 가지고 마지막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하길 바란다"며 "양당 의원총회는 이 합의를 무조건 추진해서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15일부터는 민생·경제 법안 분리 처리에 야당이 응해주길 바란다"며 "이 제안이 거부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이미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은 국회 파행을 더 이상 방지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대로 국회의장 권능을 발휘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오늘로서 132일째 국회가 본회의에서 단 1건의 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연속되고 있다"며 "2000년 16대 국회 이후 14년을 통틀어 가장 장기 표류하고 있는 국회가 19대 국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을 때도 127일 국

회가 표류했다"며 "국회 파행의 신기록이라는 오명의 헌정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지금 저희들이 되고 있다"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급진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게 참수당한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틀로프 유가족의 대처를 언급하며 "이제 세월호 유가족께서 애국심을 발휘해주실 때"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정부 여당의 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극적인 노력으로 지역 현장 경제의 근간인 부동산 심리도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관련 입법과 지역 예산 처리

에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 세월호 정쟁을 이제 끝내고 여야가 마음 모아서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true@news1.kr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여당 세월호법 대승적 양보 촉구

(서울=뉴스1) 박상휘, 서미선 기자 = 세월호 특별법 후폭풍으로 교착 국면에 빠진 정국을 탈출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 정부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원내대표간 회동에 앞서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눈 딱 감고 해결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정부패, 적당주의,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법"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뒤에서 여당을 움푹달랠 수 없게 하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서 알아서 하라며 청와대가 뒤에 숨어있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거듭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19대 국회 입법 성적이 역대 최저라는 것은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며 "19대 국회 전반기에 법안이 통과돼 공포된 건수는 1276건으로 역대 국회 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라고 하지만 이는 발의 건수가 많아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발을 빼고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는 꼼수로 국회를 왜곡해서 안된다.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정부 여당의 성실하고 진정성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이상돈 비대위원장 내정에 '술렁'

정청래 "온 몸으로 결사저지하겠다", '더 좋은 미래' 김기식 "지도부에 영입중단 촉구"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설로 술렁이고 있다.

내정설은 박영선 당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외부영입 방침을 밝힌 직후 흘러나왔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교수가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지자 강경과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1일째 단식농성 중인 정청래 의원은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교수가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났는데 사실이 아닐까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만약 박근혜 정권 탄생의 일등 주역인 이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결사저지하겠다"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선후배, 동료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돈 교수도 신중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도 "새누리당 혁신위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이상돈 중앙대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후 일체 연락을 끊고 잠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이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강경과 그룹 '더 좋은 미래'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이상돈 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한 입장'을 통해 "더 좋은 미래는 긴급회의를 갖고,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 교수를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 지도부에 영입작업의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며 "당 풀이 말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한편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새누리당 돕다가 새정치연합을 돕는다고 해서 이념적 변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권력이 둘로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권력에 동조하고 힘을 보태다가 또 다시 배를 갈아탄다는 것은 정치 도덕적 타락"이라고 비판했다. pjy1@news1.kr



잊을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Korean
Tae Kwan Do
Traditional Dance
Oriental Painting

퀸지한국학교

Quincy Korean School

2014
9월 13일 토요일



한글반
이중언어반
음악반
한국무용반
붓글씨
동양화반
태권도반

성인 문화교실
가야금반
훈민정음

장소 ; 퀸지명생장로교회
270 Franklin St. Quincy MA 02169
전화 781) 248-8852
jpkorcandance@gmail.com

국정원 댓글...정치관여 '유죄' · 대선개입 '무죄'

"정치관여 되고 선거운동 왜 안되냐는 주장, 정치적 비판"
"댓글과 트윗글에 전혀 선거개입 없는지 다룰 여지 있어"

(서울=뉴스1) 전주우 기자 = 지난해 사상 초유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거졌던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사건이 1년을 넘긴 긴 심리를 거쳐 정치관여 '유죄', 선거개입 '무죄' 등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선거개입' 지시는 없어

원 전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 주요 증거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오히려 대선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데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를 뜻한다.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지

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전원장 등의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원 전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을 살펴보다도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의 지시라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이 여당이고 국민의 지지가 적은게 야당이니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 하는게 맞는 거야. 그게 정치적으로 편드는 게 아니야" 등 원 전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은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했다고 인정되는데 주요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국정원의 국정홍보 활동이 선거 시기가 되면 당연히 선거운동이 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선거 시기 이전부터 계속해 특정 정책을 지지·반대해 온 경우 그 정책이 선거 시기에 '선거 쟁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트위터 망라...국정원 정치관여

국정원은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및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클릭 뿐만 아니라 트위터까지 이용해 정치관여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국정원 사이버전담팀의 2125건에 달하는 게시글과 댓글 작성 활동은 모두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특정 게시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찬반클릭' 1214건도 역시 검찰이 기소한 그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이 가장 치열하고 양측 모두 사활을 걸었던 '트위터 활동'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승기를 잡았다고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글 5만 5689건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했다. 이후 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트윗글은 121만건에 달했지만 변호인의 계속되는 반격으로 78만건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트윗글 11만 362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67만 3077건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트위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1157개를 특정했지만 수사의 단초가 된 심리전단 직원 김도씨의 '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이 배척되면서 175개 계정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된다"며 "나머지 982개 계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명하복' 정보기관...지시·보고 따라 사이버 활동

재판부는 원 전원장이 전부서장회의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지휘계통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게 전달됐다고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 전원장

의 지시사항을 바탕으로 매일 '이슈 및 논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고 봤다.

원 전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한미 FTA 체결, 세종시 사업 등 주요 국정현안 및 정치적 쟁점에 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홍보 지시까지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사이버 심리전 활동 내용이 국책사업 및 국정성과를 홍보함으로써 한미 FTA·4대강 등 국정홍보 관련 게시글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 및 여당을 지지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비판하는 활동으로 보고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unoo5683@news1.kr

'원세훈 선거개입 무죄'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11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원장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이같이 판단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형사합의21부는 이범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1기)를 재판장으로 이보형(34·사법연수원 37기), 오대석(30·사법연수원 38기) 판사 등이 배석하고 있다. 원 전원장의 주심은 이보형 판사가 맡았다.

원 전원장의 판결을 이끈 이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인 상황, 개인적 성향 등을 전혀 고려하

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앞선 다른 재판에서도 핵심적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해왔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관(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불신과 의혹만을 전제로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를 배척할 수 없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할 법관으로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조작' 논란으로 번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4)씨에 대한 1심에서 지난해 8월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혐의가 확

실한 경우에는 이례적일 정도로 중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린 적도 많다.

건설업자로부터 역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 전원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외부감사를 맡고서 부실감사를 벌이고 분식회계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들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적도 있다.

이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1부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라인이라며 이른바 '만민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인물인 임모(55)씨 사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국정원 무죄, 정부 부담 던 정치적 판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법원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등으로 선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게 쏠리는 부담을 덜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제기될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청와대를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깨뜨렸는데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원은 국민들이 느낄 분노와 실망을 직시하고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판결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진실을 보려는 노력

을 스스로 배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정 정당 지지·반대는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힌 재판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를 통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다시 나서야 한다"며 "2심 재판부를 포함해 사법부 역시 정권 눈치보기를 멈추고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했다.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항공권 할인
-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HANA(4262)
 Cell.phone: 617-818-2772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담뱃값, 2000원 올린 '4500원' 결정... 내년 1월 적용 추진

정부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확정...

(서울=뉴스1) 이상준 기자 =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1갑당 4500원이 돼 담뱃값이 단숨에 80%가량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값 인상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뒤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이번 인상 폭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일 밝힌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담뱃값이 1500원 인상됨에 따라 복

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른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2018년까지 연평균 5조원 넘는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기존 담뱃값에서 2000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흡연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은 "담배 사재기에 돌입하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금연한다" 등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j@news1.kr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한국인 라면 섭취 세계 1위 라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한국인의 라면 섭취량이 세계 1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2013년 1인당 74.1개의 라면을 섭취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라면을 먹는 여성의 경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비만을 아우르

는 대사증후군 등 이른바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급적 라면 섭취 횟수를 줄이고, 만약 먹더라도 수프의 양을 줄여서 조리하는 게 건강에 좋다.

또한 라면의 나트륨 배출을 돕는 데는 칼륨이 풍부한 파나 양파가 도움이 된다. 라면을 먹고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yjlee@news1.kr



KBS 뉴스 화면 캡처

가을철 피부질환 주의 지나친 샤워는 독, 물 충분히 마셔야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가을철 피부질환 주의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을은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 때문에 피부가 쉽게 지치고 주름살이 생기는 등 각종 피부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가을철 환절기에 건조한 피부는 평소보다 예민해져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며 트러블을 일으킨다. 때문에 외출 전후로 피부를 청결히 씻은 뒤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고 사

위를 지나치게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부가 건조한 경우 비누 세안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것이 좋다.

또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지친 피부가 가을철에는 약한 자외선에 도 반응해 색소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 발라 주는 것이 좋고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2~3시간마다 덧바르거나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suyoung0403@news1.kr

손석희 JTBC 뉴스, 국내 최초 100분 진행한다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종편채널 JTBC 메인 뉴스가 가을 개편을 맞아 '손석희의 뉴스9'을 폐지하고 'JTBC 뉴스룸'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11일 오전 JTBC는 "22일부터 보도부문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면서 메인 뉴스의 시간과 이름을 바꾼다"라고 밝혔다.

먼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겸 앵커가 진행하는 기존의 'JTBC 뉴스9'를 폐지하고 'JTBC 뉴스룸'을 신설한다. 신설된 뉴스 프로그램은 오후 8시부터 시작하며 뉴스 시간도 대폭 확장, 오후 9시 40분까지 100분간 내보낸다. 국내 방송뉴스에서 저녁 메인 뉴스가 100분 동안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TBC는 "메인 뉴스 시간이 늘어난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에 희생됐던 다양한 뉴스들을 함께 담아내

다"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오후 8시대는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그날의 뉴스를 정리하고, 오후 9시대는 그날의 주요뉴스를 돌아보는 앵커브리핑과 인터뷰, 심층 취재, 토론 등 말 그대로 한 걸음 더 들어간 뉴스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국내 최초 100분 뉴스 프로그램을 이끌게 된 손석희 앵커는 "지난 1년간 'JTBC 뉴스9'이 지향해 온 방향성, 즉 정론의 저널리즘을 좀 더 깊이 있게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아 온 제작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표"라며 "JTBC 뉴스가 그동안 형식과 내용 면에서 혁신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저녁 메인뉴스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각오로 또 다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전했다.

MBC와 SBS가 오후 8시대에서

지열한 뉴스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JTBC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오후 8시대는 각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또 '뉴스룸'이 9시 40분까지 방송을 하면서 KBS 1TV의 '9시 뉴스'와도 경쟁을 벌이게 됐다.

한편 JTBC 주말 '뉴스룸'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 8시에 시작해 30분간 진행되며, 앵커는 전진배 사회부장과 이지은 기자가 맡는다.

손석희 JTBC 뉴스 개편소식에 누리꾼들은 "손석희 JTBC 뉴스, 오 개편하는구나", "손석희 JTBC 뉴스, 앞으로 JTBC 뉴스 봐야지", "손석희 JTBC 뉴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면 무조건 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753@news1.kr



손석희 종합편성채널 JTBC 앵커 겸 보도 담당 사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우스터 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orcester

‘서로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

2014년 9월 21일 오후 1시 **첫예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담임 홍원철 목사

73 Lancaster St., Worcester, MA 01609 Tel: (781) 354-1843 / evergreenwon@gmail.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철

미주한인계수교장교회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 오전 11시 30분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새벽기도회 : 오전 6시 (별일 제외)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서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임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엔티비(AN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4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0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KBS MD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삼천년을 관망기운으로 삼는
제실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임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학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방: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개척운전: 화요일 저녁 8:30(스카이프)
 영학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세생빌 센터 / 17년간 헌인들을
 위해 매달 무료 집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합창단원모집



보스톤 멘토스 음악원에서
B.Mentors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 독창적인 스트레칭 체조를 통한 발성 호흡의 이해와 자기만의 음색 개발
- 전문적인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한 발성 원리의 이해와 운택한 소리의 완성
- 솔로, 중창, 합창곡 연습을 통한 음악의 이해
- 연주를 통한 지역공동체 봉사와 연례 정기연주회

보스톤 멘토스 청소년합창단 (B.Mentors Youth Chorus)

함께 합창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며 하모니를 만들어갈 청소년합창단원을 8-12학년의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연습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4:30~6:00 회비: 가을학기 \$150, 봄학기 \$200

기간: 1년 프로그램 (가을학기: 2014년 9월 28일 ~ 12월 14일,

봄학기: 2015년 1월 11일 ~ 6월 14일) *연주회 일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스톤 멘토스 성인합창단 (B.Mentors Adult Chorus)

음악과 문화를 사랑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성인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B.Mentors 성인합창단은 독창적인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 7:30~9:00 회비: 월 \$30

접수 및 문의

이메일: bomentorsmusic@gmail.com 전화번호: 617) 218-7555

주소: 326 Washington St, Annex, Suite 10, Wellesley Hills, MA 02481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wyer.com

패츠 시즌 개막전 패배, 오피시브 라인에 구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2014 NFL 정규시즌 개막전에서 마이애미 돌핀스에게 역전패를 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하였다. 패트리어츠가 시즌 개막전에서 패한 것은 200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패트리어츠는 2000년대 이후 NFL에서 가장 안정적인 엘리트 팀으로 분류된다. 빌 벨리치 감독과 쿼터백 탐 브래디 시대에 들어 3번의 슈퍼볼 우승을 비롯하여, 지난 10년 동안 9번 지구 우승을 차지하며 언제나 슈퍼볼을 노릴 수 있는 강팀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 7일 돌핀스와의 개막전에서 패트리어츠가 보여준 모습은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다. 비록 개막전이고, 아직 15번의 경기가 더 남아 있지만 후반전에 보여준 무력한 모습은 올해 패트리어츠의 시즌 전망을 어둡게 한다.

개막전에서 패트리어츠는 1쿼터와 2쿼터에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며 20대 10으로 전반을 마쳤다. 그러나 후반 들어 공격과 수비의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한 점도 득점하지 못하고 내리 23점을 허용하여 20대 33으로 패배했다.

경기를 패배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개막전 패배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노출된 것은 오피시브 라인이다.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는 패트리어츠

의 오피시브 라인을 가지고는 패스도 러닝도, 어떠한 전략도 성공시키기가 어렵다.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쿼터백 브래디는 4번의 색을 당했다. 시즌 개막전에서 브래디가 당한 색 중 가장 많았다. 만약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브래디가 매번 4번씩 색을 당한다면 패트리어츠는 NFL 기록을 세우는 것은 물론 플레이오프 진출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쿼터백이 안정적으로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패스 프로텍션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3초다.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브래디가 색을 당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2, 2.8, 2.7, 2.7초였다.

브래디는 뛰어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러닝을 겸하거나 포켓 밖에서도 활약하는 쿼터백이 아니다. 브래디는 포켓 내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 팀의 패스 러시를 피하고, 정확한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패스를 성공시키는 쿼터백이다.

지난 2013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브래디는 프레셔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기록이 큰 차이를 보인다. 프레셔가 없을 때는 65.9%의 패스 성공률에 21개의 터치다운, 6개의 인터셉션으로 96.3%의 쿼터백 레이팅을 기록했다. 반면 프레셔 상황에서는 패스 성공률이 45.8%로 떨어지고 5개의 터치다운과 5개의 인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쿼터백 탐 브래디는 4번의 색을 당했다

터셉션으로 64.0의 쿼터백 레이팅을 기록했다.

브래디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 패트리어츠는 최고 수준의 쿼터백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브래디를 보호하지 못하면 평범한 수준의 쿼터백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오피시브 라인이 견고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선수들의 포지션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이다. 벨리치 감독은 센터와 가드 포지션 선수들을 경기 내내 계속 교체했고, 오피시브 라인 내에서 한 선수가 2-3 포지션을 바꿔가며 경기에 임했다.

오피시브 라인에 확실한 리더가 없다는 것도 패트리어츠가 풀어야 할 숙제다. 30년 가까이 패트리어츠에서 오피시브 라인 코치를 맡아 왔던 단테 스

카네치아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했다.

설상가상으로 8년 동안 주전 오피시브 라인맨으로 활약했던 로건 맨킨스를 시즌 시작 직전에 탬파베이로 트레이드 했다. 맨킨스는 연봉 삭감을 제안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자 트레이드 된 것이다.

jsi@bostonkorea.com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60

왜 골프가 좋을까?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주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장병 예방: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2. 골다공증 예방: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뼈가 약해지고, 심한 경우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무리가 없을 정도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3. 성인병 예방: 걷기 운동은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4. 비만 예방: 격렬한 운동보다 걷기 운동을 장시간 하는 것이 비만을 예방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5. 고혈압 개선: 걷기 운동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어 혈압을 내리는데 좋다. 이 밖에도 골다공증 및 관절염 예방, 우울증 예방등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골프가

특히 좋은 것은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에 재미가 함께 한다는 것이다.

골프가 여러가지 면에서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시간에 매여 살다보면 사실 일주일에 한번 필드에 나가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아내도 시간 핑계를 대면서 필드에 잘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뭔가 아

내의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루에 30분 시간을 내어서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짬을 내면 일주일에 5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평소에 아내가 가끔하는 말 중에 “나는 자기 손잡고 걷는 것이 제일 좋더라” 하는 것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어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골프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골프를 좋아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아울러 골프를 하지 않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골프를 하라고 권한다. 골프를 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함께 골프를 할 골프 친구를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골프 친구를 만들기 위함과 아울러 실제로 골프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골프라는 운동이 걷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자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쓰여진 수행 방법이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은 웃음 핵폭탄!
시원하게 웃겨줄 최강 도적들의 액션 어드벤처!

KIM NAM-GIL / SON YE-JIN / YOO HAI-JIN / SULLI
LOTTE ENTERTAINMENT PRESENTS |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09.12.2014

SHOWCASE CINEMA DE LUX REVERE 565 SQUIRE RD, REVERE, MA 02151 (800) 315-4000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PIRATESMOVIEUS.COM f HITKMOVIE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55,0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000 sf.
Many updates
좋은 주거 환경, near Train Station
이현주 401-935-3397



\$455,900
Tewksbury, MA
4 Beds, 3 Baths, 2714 sf.
깨끗하게 잘 관리된 집
넓은 공간, 좋은 가격
뉴스타부동산 781-259-4989



\$729,900
Methuen, MA
4 Beds, 2.5 Baths, 3907 sf.
잘 관리된 넓고 아름다운 주택
Jay Lee 781-654-5281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465,000
Newton, MA
3 beds, 1 bath, 1180 sf.
Wonderful 3 bedroom single
family on quiet side street
OT Kim 617-620-8242



\$499,900
Lexington, MA
2 Beds, 1 Baths, 816 sf.
Amazing opportunity to own
house in Lexington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61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렌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100% 한국인 부동산 그룹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문화/다언어 서비스 / 20여 개 언어 / 100여 개의 사무실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Drop off Store



\$45,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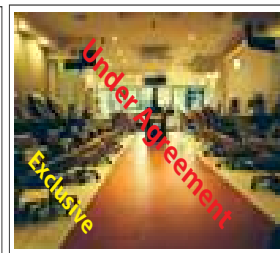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Nail Salon



\$280,000
Burlington, MA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36 September 12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54

멋스러운 에피타이저와 푸짐한 초밥부터
타쿠산 스시(Takusan Sushi)

Takusan Sushi

1223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617-739-0000
takusansushi.com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쿨리지 코너(Coolidge Corner)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타쿠산 스시(Takusan Sushi)는 브록라인의 잘 알려진 일식 레스토랑이다.

분위기 있는 바(Bar)와 넓고 깔끔한 홀, 개인 파티룸까지 구비되어 있는 타쿠산 스시는 아시아인들이 많이 찾는 주문식 초밥뷔페다.

중식, 일식, 프랑스 요리 등 다양한 요리 자격증을 보유한 타쿠산 스시의 사장이자 총주방장인 셴 첸(Shun Chen)은 레스토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최상급의 생선과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며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인 손님들이 좋아할만한 특별 메뉴가 많다” 며 자신 있게 타쿠산 스시의 요리를 선보였다. “초밥도 초밥이지만 다양하고 맛깔스러운 에피타이저가 타쿠산 스시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 이라고 덧붙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곳은 한식과 중식, 일식을 아우른 퓨전 레스토랑이었는데 작년 새로운 컨셉을 추진하면서 일식 뷔페로 메뉴를 통일했다고 셴 사장은 전했다. 이곳을 찾는 손님은 80%가 한국인,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이지만 미국인이나 브록라인에 많이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타쿠산 스시

의 요리를 즐겨 찾는다고 한다.

화려한 에피타이저가 줄을 이어 테이블로 나왔다. 그릴드 에그플랜트(Grilled Eggplant)는 골든 미소(Golden Miso) 소스가 곁들여진 가지 요리다. 겹질은 바삭바삭하게 익고 속은 가지의 연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메뉴는 타쿠산 스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에피타이저 중 하나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연어 타르타르(Salmon Tartar)는 특별히 한국 손님을 겨냥한 연어샐러드라고 한다. 깔끔한 한국식 초장으로 버무린 연어 회와 채소는 우리나라 회덮밥을 연상하게 한다. 이어 나온 핑치구이(Grilled Sanma)와 오징어 구이(Grilled Squid), 양념치킨 또한 인기 있는 메뉴다.

마지막으로 타쿠산 스시의 특별 메뉴인 타쿠산 드래곤 롤(Takusan Dragon Roll)이 접시에 멋스럽게 담겨 나왔다. 스파이시투나(Spicy Tuna)와 아보카도, 새우 템푸라가 들어간 롤 위에 특별한 하우스 소스와 연어가 곁들여 나온다.

타쿠산 스시는 여느 초밥뷔페처럼 런치와 디너의 메뉴가 조금씩 다르다. 디너에는 에피타이저의 메

뉴가 훨씬 다양하고 굴과 각종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바(bar)가 설치된다. 디너에는 사시미도 주문할 수 있다.

런치는 매일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며



평일 \$16.95, 주말 \$18.95다. 디너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로 금요일과 토요일만 오후 11시까지 연다. 가격은 평일 \$25.95, 주말 \$28.95다. 최소한 마감 30분 전까지 들어와야 식사를 할 수 있다. 6인 이상 식사 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세명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기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위원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화보통회의	413-535-0916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화보통회의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978-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계연맹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베링햄 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아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턴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턴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령교회	781-275-8233
보스턴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978-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사온교회	413-549-9200
우시우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시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클로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티케이헤어디자인	781-78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77-1735
헤어 센스	617-18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물상 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17-860-0171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신정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안힐리안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치과	617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9/5
참스포드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 분(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738-2627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9/12
세탁소에서 프레스하실 분 구합니다. 드라이와 셔츠 각 1명 (N. Andover) T. 978-273-6000

9/26
뉴튼 네일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자격증 소지하신 분/취득하실 분 환영 T. 617-678-4780

8/29
체스넛힐 레드망고 주방 보조 하실 분 구합니다. T. 617-795-0376

8/29
렉싱턴 입주 베이비시터 /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T. 617-340-9624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8/29
우번 방렌트, 유틸리티 포함 \$500 T. 781-910-4433

8/25
N[매 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케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8/25
N[매 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 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8/22
Restaurant for Sale Arlington Center on Massachusetts Ave. T. 617-480-7090

8/13
N[매 매]
뷰티서플라이 매매. 한국에서 10년 넘게 영업 하였고 리타이어 하기 위하여 급매 하고자 합니다. 면적 3,000sf, 연매상 \$500,000, 매매가 \$250,000 위치:테네시 멤피스 Neighbor Food 월마트,뷰티살롱및 이발소가 많은곳에 위치함. T. 901-267-2991

8/13
N[구인]
도라빌 지역 보험회사 여직원 구함 자격요건 : 영어, 한국어 가능하신 분. 시간 : 9am-5pm Mon-Fri T. 770-458-9001

8/13
N[구인]
우리들척추신경원에서 여직원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resume를 보내주세요. Accidentrecoverycenter5460@gmail.com

8/13
N[구인]
돌루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함께 일하실 여직원을 찾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은 이력서를 eun@eparklaw.com 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rates effective as of 5/1/14.

'연애의 발견' 정유미, 캐릭터 개성 살리는 남다른 패션 '눈길'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인턴 기자 = '연애의 발견' 정유미가 감각있는 패션 감각을 뽐냈다.

배우 정유미는 최근 방송된 KBS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극본 정현정/연출 김성윤 이응복)에서 매력적인 스커트 패션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극 중 아무지고 솔직하며 명랑 쾌활한 역할인 한여름으로 열연 중인 정유미는 깔끔한 화이트 셔츠와 연꽃 프린팅이 있는 H라인 스커트로 센스 있는

패션을 보여줬다. 특히 그의 스커트는 심플한 H라인으로 디자인돼 페미닌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 스커트는 '스타일난다'의 제품으로 감각적인 프린트는 상의의 매치에 따라 가벼운 캐주얼룩으로 소화 가능하며 길이가 짧지 않아 스타일 리시한 오피스룩으로도 적합한 아이템이다.

한편 '연애의 발견'은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비인륜적" 레이디제인·김성준, 광화문 떡거리 집회에 쓴소리

(서울=뉴스1스포츠) 이한솔 기자 = 가수 레이디제인과 앵커 김성준이 광화문 떡거리 집회에 대해 언급했다.

가수 레이디제인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퍼포먼스'라니. 자신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의식조차 없을 텐데, 기본 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모습을 보니 섬뜩하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이에 대해 일베 회원들의 글로 추정되는 악성 댓글이 쏟아지자 레이디제인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앞서 일베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치킨, 라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

서 단식 중인 유가족과 시민들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디제인에 이어 김성준 앵커 역시 이 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포털 검색어 1위에 '광화문'이 올랐길래 왜 그러냐 하고 들어가 봤다가 기분이 상해버렸다"며 "생각을 표현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지만 자기가 표현한 생각이 얼마나 천박하고 비인륜적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성준 레이디제인, 나도 공감한다", "김성준 레이디제인, 뼈 있는 일침이다", "김성준 레이디제인, 속 시원하네" 등 반응을 보였다.

■ 김성준 SBS 8 NEWS @SBSjournie · 24시간

포털 검색어 1위에 '광화문'이 올랐길래 왜 그러냐 하고 들어가 봤다가 기분이 상해버렸다. 생각을 표현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지만 자기가 표현한 생각이 얼마나 천박하고 비인륜적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 1953 ★ 316

'해적' 관객수 800만 돌파 '수상한 그녀'보다 빠르다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인턴 기자 = '해적'이 극장가에서 여전히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감독 이석훈 / 이하 해적)은 10일 오전 9시 관객수 800만을 돌파했다. 이는 총 865만 관객을 동원해 올해 흥행작 3위에 올라있는 '수상한 그녀'보다 빠른 관객 동원 속도이다.

'해적'은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7.8%의 높은 좌석점유율을 기록하며 지난 9일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이석훈 감독은 "800만 명이 '해적'을 선택해 주셨다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좋은 소식을 듣게 돼 너무나도 기쁘다"고 전했다.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 전 고래의 습격을 받아 국새가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찾는 해적과 산적, 그리고 개국세력이 벌이는 바다 위 통쾌한 대격전을 그리는 영화다. 배우 김남길, 손예진, 유해진, 이경영, 김태우, 김원해, 조달환, 이이경, 설리 등이 출연한다.



'일대일' 베니스 데이즈 작품상 수상. 3년 연속 베니스 방문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일대일'이 제7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제11회 베니스 데이즈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배급사 화인컷 측은 10일 "영화 '일대일'이 지난 6일 막을 내린 제7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제11회 '베니스 데이즈'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베니스 데이즈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기간 중 이탈리아 영화감독협회와 제작가협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영화제 부문으로, 칸 국제영화제의 감독주간에 해당된다.

'일대일'은 베니스 데이즈의 개막작으로 선정돼 전세계 관객들 앞에서 첫선을 보여 큰 호평을 받았다.

이로써 김기덕 감독은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피에타'(2012), 제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미비우스'(2013)에 이어 '일대일'(2014)로 3년 연속 베니스를 방문한 진기록을 세웠다. 더불어 '일대일'로 베니스 데이즈 작품상 수상의 영예까지 거머쥐었다.

김기덕 감독은 "'일대일'은 권력의 부정부패와 싸우는 서민들의 이야기다. 민주주의의 죽음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사건과 이를 파헤치다 결국 외롭게 죽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아픔을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일대일'은 한 여고생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뒤 벌어지는 이야기로 살인 용의자 7인과 그림자 7인의 숨 막히는 대결을 그린다. 상하관계에 따른 인간 군상의 모순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마동석, 김영민, 이이경, 조동민, 태오, 안지혜, 조재룡 등이 출연했

다.

김기덕 일대일 베니스 데이즈 작품상 수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기덕 일대일, 수상 축하드려요", "김기덕 일대일, 3년 연속 참석 정말 대단하다", "김기덕 일대일,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받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9월 1일 ~ 9월 7일



1위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29.4%



2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21.9%



3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1.8%

- 4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둥지) 19.4%
- 5 KBS1 KBS9시뉴스 16.0%
- 6 MBC 주말특별기획(마마) 14.0%
- 7 MBC 일일특별기획(엄마의정원) 13.9%
- 8 KBS1 가요무대 13.6%
- 9 KBS2 개그콘서트 13.5%
- 10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12.8%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예뻐졌다 박보람
- 02 공허해 WINNER
- 03 I Swear 씨스타
- 04 연결고리#힙합 Bobby
- 05 A Real Man 스윙스,에일리
- 06 Touch My Body 씨스타
- 07 한여름밤의 꿈 San E
- 08 HER 블락비
- 09 I'm Fine Thank You 레이디스 코드
- 10 어려운여자 장범준

숫자 퍼즐 (Sudoku)

2			5			1		4
3		1			2			
7				1	4			8
8	5	7					9	
		9				7	6	2
	8		7	5				6
			1			3		5
5	6				3			1

9월 14일 - 9월 2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 운수: 옹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크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 금전: 현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노력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 이런 게 바로 욕심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5, 18일 길일, 17, 20일 주의.

토끼띠 |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 운수: 안정이 되지 않고 궁지에 몰리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들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용동이 되나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은 모르지만 정작 기다리는 사람은 지치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6, 18일 길일, 14, 20일 주의.

말띠 | 서두르지 않도록

● 운수: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 금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는 주입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자금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의심이나 불완함이 느껴지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6, 20일 길일, 14, 17일 주의.

닭띠 |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 금전: 이익이나 금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더 이상 마음속으로는 아니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안 그런척하면서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소띠 | 의욕이 샘솟고

● 운수: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 금전: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을 합치게 됩니다.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다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4, 19일 길일, 18, 20일 주의.

용띠 | 기분 전환이 필요한

● 운수: 해결점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금전: 기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스스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노력과 지출도 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뿌연게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야가 갑자기 환해지면서 보이게 됩니다.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4, 16일 길일, 15, 19일 주의.

양띠 |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요.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되니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0일 길일, 14, 15일 주의.

개띠 | 행운이 함께 하는

● 운수: 죽은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듯이 현실을 직시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 금전: 지출이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오는 운입니다.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 애정: 행운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8일 주의.

범띠 |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평소 때보다도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 금전: 돈이란 없다기도 있고 있다기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낭만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7, 20일 길일, 19일 주의.

뱀띠 | 멀리 움직이기에 좋은

● 운수: 여행을 떠나거나 멀리 움직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어디든지 다녀오는 것이 심기일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 큰 어려움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씩씩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들이나 간직해오던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주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5, 20일 길일, 16, 19일 주의.

원숭이띠 | 활기를 찾게 되는

● 운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됩니다. ● 애정: 가정문제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애정문제에 있어서도 희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

돼지띠 | 벗어나고 싶은

● 운수: 능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 금전: 동업을 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람도 잃고 재물 또한 잃을 수 있으니 제의가 들어와도 거절하세요. ● 애정: 경솔한 행동은 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충실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3일 길일, 7, 10일 주의.

고준희, 언더웨어에 청바지만 입고 골곡 몸매 과시

(서울=뉴스1스포츠)권수빈 기자 = 배우 고준희가 완벽한 몸매를 과시했다.

11일 공개된 사진 속 고준희는 과감한 검정 언더웨어에 청바지 차림으로 고혹적인 매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몸매와 슬림한 핏은 탄성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지난 8월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촬영에서 고준희와 박해진은 남녀 커플의 뜨거운 시간을 표현했다. 고준희는 데님 하나만으로도 능숙한 모습으로 섹시한 무드를 완벽히 이끌어 내 스태프들의 찬사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들의 감각적인 모습은 패션 매거진 보그와 엘르 10월호를 통해 볼 수 있다.

한편 고준희는 임상수 감독의 신작 '나의 절친 악당들'을 준비 중이다.



god 박준형, 강호동 볼 잡고 아기취급 천하장사도 꼼짝 못해 '폭소'

(서울=뉴스1)온라인팀 기자 = 천하장사 출신 방송인 강호동이 그룹 god 박준형에게 아기 취급을 당했다.

강호동은 최근 진행된 MBC 예능프로그램 '별바라기' 녹화에서 "박준형이 데뷔할 때는 동생이었으나 'X맨'을 진행할 때부터 형님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에 박준형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강호동 볼을 잡으며 아기취급을 해 강호동을 당황하게 했다.

강호동은 틈만 나면 볼을 잡는 박준형에게 방송 데뷔 이후 처음으로 볼을 잡혔다고 말하며 그의 손길에 꼼짝 못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특히 이날 박준형은 특유의 입담으로 god의 과거사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예능감을 뽐냈다.

다. 이와 함께 god는 히트곡 메들리를 선보여 팬들에게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했다.

god 박준형의 활약은 11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되는 MBC '별바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지영, 카라 탈퇴 후 첫 日 공식석상 "배우로서 초심 잃지 않고 노력"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걸그룹 카라 전 멤버 강지영이 일본에서 정식 배우로 활동하는 소감을 밝혔다.

최근 일본 복수의 매체는 "카라 전 멤버 지영이 지난 6일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리는 '제19회 도쿄 걸스 컬렉션'(TGC) 무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대는 강지영이 카라 탈퇴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공식 석상으로,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런웨이를 활보하며 일본 활동 재개의 신호탄을 쐈다.

강지영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라고 말하며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어 이제는 한 배우로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배우로 데뷔하는 각오와 당부를 전했다.

지난 4월 5일 전 소속사인 DSP미디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카라를 탈퇴한 강지영은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지난달 일본 연예 기획사 스

위트 파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강지영은 내달 방영되는 일본TV계 드라마 '지옥선생 누베'에서 유키메 역할을 맡아 촬영 준비 중이다.



'룸메이트' 조세호-나나, 영화관 데이트 눈길



(서울=뉴스1)온라인팀 기자 = 조세호와 나나가 영화관 데이트를 즐겼다.

7일 방송된 SBS '룸메이트'에서는 조세호와 나나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조세호는 나나와 영화관람 데이트를 위해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를 눈치를 챈 나나는 "혹시 영화관 다 빌리거나 그런 것 아니지?"라고 물었고 이에 조세호는 "뭘 그런 걸 하겠어. 아니야"라며 당황해 했다.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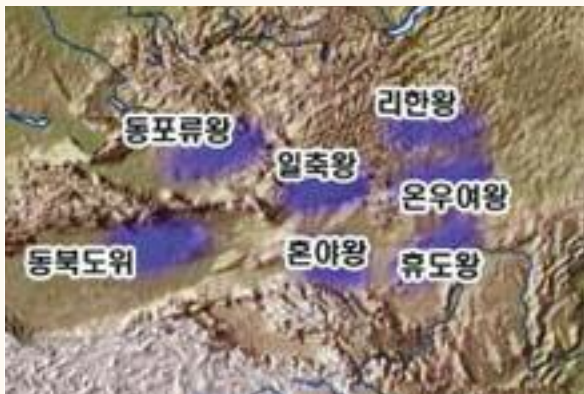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12)>

묵특 선우의 흉노 전성기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나라 때 흉노 분봉왕의 영역

묵특 선우, 아틸라, 징기스칸, 티무르 이들 4명은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흉노의 영웅들이었다. 아주 짧은 기간에 거대한 초원제국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었다.

묵특은 최초로 흉노 제국을 건국한 영웅이었다.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고 한다. 그의 부왕 두만(頭曼) 선우(單于)때 중국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던 때(BC 221)로 그는 몽염 장군에게 30만 군사를 주어 황하 상류 하투지역(지금의 오르도스)에 살고 있던 흉노족을 몰아내 버렸다(BC215).

이때 흉노는 흥망의 기로에 처했으니 동쪽의 강성한 동호(東胡)는 아예 흉노를 무시했고, 서쪽의 월지(月氏)는 흉노로부터 하서주랑을 빼앗아가고도 부족하여 불모를 보내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북쪽의 정령(丁零: 지금의 돌궐)이 계속 침공해오고 남쪽에서는 막강한 진나라 몽염 장군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을 사마천 사기(史記) 흉노 열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선우에게 묵특(冒頓)이라는 태자(太子)가 있었다. 두만 선우와 알지(閼氏: 왕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묵특을 폐위하고 작은 아들을 태자로 세우고자 하여, 묵특을 월지국에 인질로 보냈다.

두만선우는 묵특을 죽이려고 묵특이 월지국에 인질이 되어 있는데도 월지국을 공격하였다. 월지국으로 하여금 묵특을 죽이게 하려는 의도였다. 월지가 묵특을 죽이려고 하자 묵특이 말을 훔쳐 타고 도망하여 돌아왔다. 두만선우는 그것을 장하게 여겨 만기(萬騎)의 장수를 삼았다.

묵특은 이에 명적(鳴鏑: 소리나는 활)을 만들어 기병들에게 활쏘기를 익히도록 하며 명령하기를 명적이 맞는 것을 쏘지 않는 자는 참한다고 하였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말을 향해 명적을 쏘았다. 주저하며 활을 쏘지 못하는 병사들이 있어 묵특은 그들을 참하였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의 알지(처)를 쏘았는데, 역시 활을 쏘지 않는 병사들을 죽였다.

얼마 뒤에 사냥을 나갔다가 아버지 두만의 말을 향해 명적을 쏘았다. 이번에는 부하들이 모두 말을 향해 활을 쏘아댔다. 그는 마침내 두만선우를 제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두만과 함께 나갔다가 두만을 향해 명적을 날리자 모든 병사들이 활을 쏘아 두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는 마침내 선우의 자리에 올랐다.

그 때 동쪽에서는 강성한 동호(東胡)가 있었다(BC 209~BC174). 묵특이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선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동호는 곧 사자를 보내 두만이 생전에 타던 천리마

를 달라고 하였다. 묵특이 신하들에게 물으니 “천리마는 흉노의 보배입니다. 주지 마십시오” 하였다.

묵특은 “어찌 남과 나라를 이웃하여 있으면서 말 한 필을 아끼겠는가?” 동호에게 천리마를 주었다. 얼마 뒤에 동호는 묵특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자를 보내서 알지(선우의 부인) 중 한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다.

신하들이 “동호가 무도하여 알지를 요구합니다. 청컨대 그를 공격하십시오” 하였다. 묵특은 “어찌 남과 나라를 이웃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의 여자를 아끼겠는가.” 드디어 사랑하는 알지를 동호에게 주었다.

동호의 왕은 더욱 교만해져서 동호와 흉노 사이에 천여 리에 걸쳐있는 버려진 땅을 요구하였다. 묵특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어떤 사람은 “이것은 버려진 땅이니 주어도 좋으며 또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묵특은 매우 성내어 말하기를 “땅이란 것은 나라의 근본이다. 어찌 그것을 줄 수 있겠는가.”



흉노 - 한의 전적지

그는 땅을 주자고 말한 신하들을 모두 참하였다. 드디어 동쪽으로 동호를 습격하였다. 동호는 묵특을 경시하여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동호왕은 전사하고 흉노는 그 백성과 가족을 건어드렸다. 다시 서쪽으로 월지를 쳐서 달아나게 하고 남쪽으로 누번과 하남(河南)의 백양왕(白羊王)을 병합하였다.

북쪽으로 혼유, 굴사, 정령, 격곤, 신려 등을 치고 남쪽으로 진나라 몽염에게 빼앗겼던 흉노 땅을 되찾은 후 연나라와 대(代)나라로 쳐들어갔다.

당시 중국은 항우와 유방이 쟁패 중이어서 흉노가 연, 대를 침공한 것을 상대할 겨를이 없었다. 한고조(漢高祖) 유방이 비로소 중국을 통일하고 한왕(韓王) 한신을 대(代)에 옮겨 마읍(馬邑)에 도읍을 정하게 하였다. (한신은 유방을 도운 대장군 한신과는 동명이인이다).

흉노가 마읍을 포위하니 한신이 항복하고, 흉노는 남쪽으로 태원(太原), 진양(晉陽)에 이르렀다. 한고조가 친히 출병하게 되었는데 때가 마침 겨울이라 몹시 추워 한나라 병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떨어진 자들이 많았다.

묵특이 약졸들만 내보내어 유인하니 한나라는 32만의 병력으로 흉노를 추격하였다. 한고조와 한나라 기병들이 먼저 평성(平城)에 도착했지만 대부분의 보병들은 뒤로 처지게 되었다.

묵특은 40만의 기병으로 백등산(白登山)에 고립된 유방을 7일 동안 포위하였으니 한나라 군사들은 군량이 다하여 흉노의 대군을 상대할 상태가 못되었다. 한고조는 사자를 시켜서 몰래 후한 선물을 알지(閼氏: 왕후)에게 보내었다.

사자는 은밀하게 선우가 한나라를 쳐부수면 한나라에 있는 수 많은 미인들이 선우를 모시게 되니 그리 되면 알지의 처지가 딱하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알지는 묵특에게 “두 나라의 임금은 서로 곤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나라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곳은 선우가 끝내 살만 한 곳은 아닙니다. 또 한왕에게도 신(神)이 있는 것이니 선우는 살피십시오” 라고 진언하자 묵특은 알지의 말을 좇아 포위의 일각을 풀어주었다.

양쪽 군사들이 철수한 다음에 한나라는 흉노와 굴욕적인 화친을 맺었다. 흉노에게 호된 곤욕을 치른 한고조는 흉노와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으니, 한고조를 이어 혜제, 소제, 문제, 경제는 유언을 충실하게 지켜 흉노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 흉노에게 매년 조공을 바쳐 흉노와의 갈등을 피하곤 하였다.

당시 흉노와 한나라가 맺은 화친 조약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 1) 한나라 공주를 흉노 선우에게 의무적으로 출가시킨다.
- 2) 한나라는 매년 술, 비단, 곡물을 포함한 일정량의 곡물을 바친다.
- 3) 한나라와 흉노가 형제 맹약을 맺는다.
- 4) 만리장성을 양국의 경계로 한다.

이 합의는 BC198년 중국 종실의 공주가 흉노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이 흉노에 보내는 조공 액수는 매년 늘어났는데 BC192년부터 BC135년까지 60여년 동안 9번에 걸쳐 흉노에 보내는 조공 액수가 증가했으나 실상 전한(前漢)은 흉노의 속국과 같은 존재였다.

이 시기에 흉노는 동쪽으로 예맥, 북쪽으로 예니세이강 상류, 서쪽으로 알타이를 넘어서고 남쪽으로 중국의 오르도스에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다.

제 7대 한무제(BC141~BC87) 때에 이르러 흉노와 한나라의 역학 관계가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하여 김씨의 시조 김일제가 역사 기록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흉노 묵특 선우와 한고조가 싸운 평성



성기주 법 칼럼

이민개혁과 11월 선거

매칠 전 로이터스 통신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이민개혁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오는 11월 연방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이후 다른 매체들을 통해 이 결정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자칫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선거에 나쁘게 작용해 민주당의 다수 지위를 뺏길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국회가 이민개혁에 대해 계속해서 미흡하게 대처한다면 대통령 독단적으로라도 이민개혁을 강행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가 있는지 불과 몇달 안에 정반대되는 행보라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 세력에서도 상당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이민개혁의 지연은 민주 공화 양당간의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선거 전에 단독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장기적은 안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민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오바마 지지층에서의 실망과 비난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오차피 이민문제가 정치적 타협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햄프셔에서의 상원레이스에서는 이민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공화당 Scott Brown측이 현 상원의원인 민주당 Jeanne Shaheen 의 지지율을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 부터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주장했고 이를 이슈화해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민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수 많은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민개혁을 실행할 타이밍에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랍게도 다른 많은 큰 사안들이 터져왔습니다. 따라서 이민개혁은 계속해서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워낙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표현했었기 때문에 이번 이민개혁 지연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지연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특히 히스패닉으로부터의 신뢰)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에게는 선거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민개혁 지연을 계속해서 물고 넘어짐으로서 이들의 전통적 지지층인 반이민계층에게 계속 어필할 것이고 이민을 반대하는 부담 없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이민개혁 지연을 비판만으로) 화난 이민자와 친이민 계층에게도 크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한시라도 시급한 이민개혁이 또 다시 정치적인 사

안으로 지연 된 점은 유감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민을 이슈화 하지 않으려는 민주당과 이민개혁 지연을 이슈화 하는 공화당 간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돈의 흐름과 금리의 관계

경제의 핵심은 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물가, 금리,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돈과 관련이 있다. 즉 돈의 흐름만 잘 알아도 경제의 커다란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흐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돈의 흐름은 우리의 인체에서 피의 흐름과도 같다. 피가 잘 순환하면 건강한 사람이듯 돈이 잘 흐른다는 것은 건강한 경제를 의미 한다.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은 결국 돈이 잘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돈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경제에 유입 되는데 그 하나는 벌어서 가져오는, 즉 생산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빌려오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생산을 통한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반면 돈을 빌리는 것은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 어떻게 태어나고 흘러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돈, 즉 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중앙은행이다. 미국은 FRB(Federal Reserve Board)에서 이 일을 총괄한다. FRB는 현재 미국의 총 12군데의 멤버 은행을 통해 각종 은행에 대출을 해주고 그 은행들은 시중에 통화를 공급한다. 이때 FRB가 시중 은행에 대출해 주는 금리를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라고 한다. 일반 은행들은 이렇게 빌려온 돈에 가산

금리를 붙여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해주고 수입을 올린다. 그러므로 대출이자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은행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활발하게 해 주면 결국 시장의 유동성, 즉 통화량(Money Supply)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등이 따라 오르며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의 수요가 줄어든다. 반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이자가 저렴한 이유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기준금리는 시중에 흐르는 돈의 양을 결정하므로 우리의 자산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2009년 부동산 파동이 후처럼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려고 저금리를 유지하면 사람들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말은 금리가 낮다 보니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기준금리가 현재처럼 적정 수준보다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자금의 흐름은 은행권 예금에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간다.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꾸는 사람들이 저금리 예금상품 보다는 고수익을 꾀할 수 있는 투자를 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는 한가지 문제가 있다. 시장 경제가 오르려면 독점재벌이나 부자들이 돈을 많이 빌려야 앞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들이 돈을 빌리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기준금리를 인하여 일반 시민들이 돈을 빌려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자칫 잘못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선택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반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기가 빠르게 활성화되거나 과열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금리가 오를 때, 즉 돈의 수요가 많을 때는 대체로 경기가 좋을 때다.

2009년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례적인 저금리로 그만큼 경제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지난 3-4년 동안 대대적인 유동성 장세가 펼쳐져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올랐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주가지수 모두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실제적인 실물 경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의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얼어붙었던 경

제의 바닥이 지나갔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끌어 올리는 방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한담객설閑談客說: 열려라 참깨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하늘은 높아 간다. 그리고 푸르러 간다. 하지만 잔서殘暑는 남아있다. 한낮은 아직도 덥다. 그래도 설익었다만 도토리도 떨어진다. 후두둑 떨어져 땅에 닿는 소리가 제법 크다. 우리집 앞마당 나무는 벌써 낙엽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제 내린 천동번개에 애꿎게 도토리도 낙엽도 또 떨어졌다.

추석에 송편은 드셨는지...

아내는 깨를 길렀다. 뭐 대단한 농장을 가졌다는 건 아니다. 텃밭에서 농사짓는 것도 아니다. 그냥 화분에 한두 그루 깨를 심었다. 대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바쳐 키웠다. 저녁이면 물을 주고, 양지를 찾아 화분을 이리저리 옮겼다. 나야, 그저 푸른 식물이 자라나 보나 했다. 무덤덤히 관심도 없었다. 대신 아

내가 출타 중엔 내가 물을 줘야 했다. 아내의 명령이므로 잊어서는 안되는 막중한 책무인 게다. 올해에도 아내는 깨를 기른다.

작년 이맘 때다. 아내가 저녁상을 보더니, 문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에 아내 손엔 껏잎 몇 장이 들려 들어왔다. 엄지손가락 만한 것 서너 장이었다. 차마 껏잎이라기엔 작아 너무 어려 보였다. 하지만, 표정 밝아진 아내는 몇 번 물에 헹구 식탁에 놓았고, 고기 한점 올려 입에 넣었다. 사뭇 맛있다는 표정이고, 너무 부드러워 입맛이 더욱 동한다는 얼굴이었다. 차마 그 껏잎에 내 손은 가지 않았다. 입맛이 당기지 않은 거다. 법정스님은 육고기를 아구아구 먹어대는 모습을 언짢아 하셨다. 아내가 그 작은 껏잎을 입에 넣을때 엉뚱한

억하심정이 솟아났다.

독자들아, 아내에게 내가 그러더라고 고자질 하지 마시라. 아내는 아직 모른다.

‘열려라’ 하면 ‘참깨’ 라고 대답한다면 그리 나쁘지 않을듯 하다. 한국 군대 암호처럼 말이다. 그런데 ‘열려라 참깨’ 는 패스워드로 하기엔 너무 길다. 한참 오래전에 읽었던 간추린 ‘아리바바와 사십인의 도적’ 인가 동화에 나오는 비밀주문이다. 이 말은 아마 최초의 패스워드가 아니던가. 이걸 잊지 않고 있으니 가상하다. 현대 이것 말고도 외우고 있는게 있다. 주민등록증 번호와 군번이다. 셀폰 번호와 집 전화번호는 외우지 못해도, 이 번호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쓸모 없는 번호인데도 말이다. 현대, 한

국 무슨 사이트에 들어 갈라 치면,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내게는 그 번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들어갈 방법이 없다. 번호는 무효되어, 더 이상 내가 나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패스워드는 ‘열려라 참깨’ 라고 정하려 했는데 말이다. 문門이건 웹사이트건 들어가기 위해서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하긴 요새는 무슨 유저아이디에 패스워드에 별것별것 다 물어 본다. 세상이 복잡해졌다. 자유한 세상이며, 열릴지이다. 참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 13:24)

신영의 세상 스케치

464회

노릇하기란?!

노릇의 갖가지의 이름표는 그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인생 여정의 행로인지도 모른다. 부모의 자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식의 부모가 되고 손자 손녀가 되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네 삶이다. 노릇이란 이처럼 말이 아닌 행동이 함께 따라야 하기에 더욱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욱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노릇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바빠 돌아가는 세상에 이것저것 어찌 다 챙기며 살아 나 살기도 바쁘고 버거운데 하며 친구들과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에 시원하지 않게 남는 그 무엇은 아마도 다하지 못한 노릇의 분량은 아닐까?!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른 이유가 필요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서도 눈에 오가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질만능주의로 편안해진 요즘 우리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처럼 잃어버린 진한 마음의 정일 게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 되었던 형제·자매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간에 삶에서 피부로 느끼며 사는 부분이다. 마음이 앞서다

가도 지금의 형편이 어려우면 그 마음마저도 접어야 하는 때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네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겪는 일이 지 않던가.

노릇하기란, 하고 생각을 하니 처음 결혼을 했던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친정 집에서 막내로 자라 다른 자매들에 비해 별 불편함 없이 자라왔었다. 그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 훌쩍 미국 땅에 와 2년을 보내며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우리의 입장에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는 모험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독립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 누구의 강요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2년 6개월의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정신적으로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 가족이 독립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세 아이를 시어른들께서 참으로 예뻐해 주셨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늘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주셨다.

그때는 그것이 삶의 참 행복인지 잘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시어른들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과 정성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다. 이처럼 시부모님께 서는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부모의 노릇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릇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풀어놓으셨던 것이다.

그런 때가 있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아마도 20여 년이 훌쩍 지난 일일 게다. 이렇게 시댁에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정신적으로 버거운 시집살이는 하며 살았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다. 그렇게 해서 2년 6개월 만에 분가하고 아파트를 얻어 1년을 살며 그곳에서 막내 녀석을 낳고 6개월 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었다. 그리고 어릴 적 친구도 이 무렵에 미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 마음이 참으로 든든했었다. 하지만 친구는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입장이라 늘 마음이 안쓰러웠었다. 그때 그 친구가 받기만 한다며 이 '노릇하기'에 대해 늘 미안해했던 기억이다.

하지만 돌고 도는 것이 세상살이가 아니던가. 친구는 열심히 20여 년을 아끼고 절약하며 사업도 일구고 큰 집도 사고 세 아이들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몇 년 전 경제적으로 여유롭던 내 가정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었다. 남편의 건강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며 깊은 고민에 있을 무렵 연년생의 세 아이는 대학교에 보내야 할 형편에 이르렀을 때가 있었다.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한 그런 때를 나 역시도 겪었던 것이다. 정말 그때는 가족이나 친구 그 누구에게도 '내 노릇하기'에 철저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아닌 우선 나 추스르기에 바쁜 그런 시간이었다. 세 아이를 일단 대학을 졸업시키는 것만이 '내 노릇(부모노릇)'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10년이 가깝도록 마음의 여유 없이 보내고 나니 막내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이제야 깊은 호흡으로 나를 돌아보게 된 것이다. 어릴 적 친구가 오래전 내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늘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오버랩되어 하던 그 친구의 '노릇하기?!'란 그 말이 내 마음을 스친다. 그렇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 사정이야 어찌 됐든 그 누군가에게 '내 노릇'하며 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일인 것을.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KCSB 2nd Annual Exhibition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제2회 협회전



Wonjae Cha, Miae Cho, Eunice Choi,
Ji Young Hwang, Dallae Kang, Hee Jung Kim,
Sawool Kim, Eunjoo Lee, Hanka Lee,
Jaeok Lee, Ji In Lee, Yong Suk Lee,
Sung Sook Na, Young Shin, Unju Sim,
Soo Rye Yoo, Chang Woo Yoon, Younga Kim
Invited Artist: Peter Haines

2014 September 20th through October 5th
Tuesday to Friday and Sunday: 12 p.m. to 4 p.m.
Saturday: 10 a.m. to 4 p.m.
Reception: September 20th,
Saturday 2:00-4:00 p.m.

Sponsored by 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
and Lexington Cultural Council



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Phone: (781) 367-5993 email: info@kcsBoston.org



백린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의 침략정책과 조선총독의 고려대장경 간행 (6)

— 중일전쟁 —

1936년 제11회 올림픽대회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독일의 히틀러 총통은 국위를 선양하는 의미에서 “민족의제전(民族의祭典)”이라고 했다. 게르만 민족을 계승한다는 자부심에서 인지 모른다. 이 베를린 올림픽대회의 마라톤 경주에 양정고보의 손기정선수가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로 출전하여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 했다. 그런데 손기정은 한국선수가 아니고 일본선수로 출전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태극기가 아닌 일본의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다. 동아일보는 손기정선수가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본의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던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되어 일장기를 지우고 대신 태극기의 사진을 넣어 대한의 아들 손기정군이 베를린 마라톤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크게 보도했다. 일본정계는 손기정이 가슴에 달았던

일본의 일장기가 보이지 않고 한국의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손기정의 사진을 보고 놀랐다. 대한의 독립을 절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사건이었다. 당황한 조선총독부는 동아일보의 사장과 편집부의 기사를 검거 하여 투옥하고 동아일보를 무기한 정간시켰다.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제6대 조선총독 우기기가즈시게(宇垣一成)가 1986년 8월 경질되고 대신 관동군사령관을 지낸 미나미지로(南次郎) 육군대장이 제7대 총독으로 부임해왔다. 일본은 조선통치를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의 강경파인 미나미를 조선총독으로 보낸 것이다. 미나미는 일찍이 조선과군 사령관과 관동군 사령관을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주와 조선의 사정을 잘 아는 자이다. 미나미가 조선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전시 중 총독으로서 그가 조선에 어떤 정책을 펴왔는가를 확실히 밝히자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중일관계는 1937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첨예해져졌다. 1937년 7월 7일이다. 중국의 북경 서남쪽에 흐르는 영하(永河)의 노구교(盧溝橋) 근처에서 일본의 복지 주둔군이 야간 연습을 한다면서 기관총을 발사했다. 그런데 그것은 실탄이 아니고 공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군은 그것을 일본군이 도전해 온 것으로 알고 즉시 대항해서 공격에 나섰다. 그런데 웃기는 일은 일본군 병사 하나가 용변을 보러갔는데 그것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상부에 보고하여 생각이 없는 연대장은 중국군이 납치해간 것이라고 하면서 즉시 공격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昭和史, 우에무라시게가 저 참조) 이로 인해 중일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중일전쟁에 대하여는 여러 말이 많다. 만주사변과 같은 계획적인 침략전쟁이 아니라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전쟁은 만주사변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일전쟁(일본은 지나사변이라고

했음)과 태평양전쟁(일본은 대동아 전쟁이라 했음)으로 이어진 15년의 전쟁이었음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찌하느냐 말이다. 노구교 부근의 전투로해서 중일 간에 전쟁이 벌어져서 일본의 고노에(近衛)내각은 즉시 북중국에 가까운 관동군과 조선 파견군을 북중국으로 보내 응원케 했다. 일본의 복지(북중국) 파견군은 7월 27일에 북경과 천진을 포위하고 중국의 제29군에게 투항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중국군은 투항을 거부하고 오히려 완강히 대항하고 나오자 전투는 10여일이나 계속되었다. 일본군은 총공세를 취하여 29일야에 겨우 북경과 천진을 점령했다. 이때의 중일 간의 전쟁을 일본은 축소하여 “북지사변”이라고 했다.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은 북경과 천진의 점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1937년 8월 9일에 상해의 노산에서 일본 해군의 오야마 이사오(大山勇夫)중위가 중국의 보안대원에

게 살해되었다. 일본의 상해 육전대는 이를 구실로 하여 8월 13일 중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제 2차 상해사변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 오야마중위의 살해사건도 일본육군의 모략이 있는지 모른다. 제 2차 상해사변이 발단하면서 중일 간에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일본의 고노에내각은 중국군에 대항 하기 위해 8월 15일 5개 사단의 병력을 상해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마쓰이 이시네(松井石根)대장을 파견군 총사령관에 임명하여 총공격에 나서게 한 것이다.

국민정부의 장개석총통은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하여 전면 전쟁을 다짐하면서 1937년 7월 8일 국민 총동원을 선언했다. 중국 공산당의 주은래 수상이 1937년 7월 11일 국민정부의 장개석총통에게 대일전에 공동 대처할것을 제의했다. 장개석과 주은래는 노산에서 회동하여 대일 통일 전선을 취할것에 합의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47 정조 임금과 장용영壯勇營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노론과 외척 세력으로 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세자시절을 지내온 정조는 즉위 후 자신의 호위 군대를 비롯하여 나라의 무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군비를 증강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최정에 무사들로 만든 호위 군대인 장용영壯勇營이다.74) 정조는 1776년도에 즉위하였다. 즉위 초에는 흥국영에게 호위 책임을 맡기면서 숙위소를 설치하여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이 숙위소는 1779년 흥국영이 축출되면서 그 정치적인 역할을 다하고 폐지되었다. 그리고 호위 군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무예가 특출하고 통솔력이 뛰어난 무관 30명으로 1782년 장용위를 신설하였다. 1787년 군사가 50명으로 늘어나면서 장용영으로 승격되었고 1788년에 장용영으로 개명하였다. 장용영으로 개명 당시에는 군사의 수가 500여명 정도였는데 그 후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1793년에는 한양의 내영과 수원 화성의 외영으로 나누었으며, 타 군영들 보다 규모가 더 컸다. 내외영으로 나눌 당시의 병사의 수가 3,450여명이었다. 또 다시 1795년에 재편하는 과정에서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을 호위하고 화성행궁을 지키는 목적

으로 설립된 장용외영은 수원부의 병사들을 흡수하여 오위체제로 재편됨으로 조직이 완성되면서 총 12,000여명의 규모로 늘어 났으며 왕권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던 무술기예의 발전 사업을 이어 받아 이 장용영내에 설치된 사무국에서 무예도보통지를 저술케 하였다. 정조의 명을 받은 박제가와 이덕무 그리고 백동수는 무예제보와 무예신보를 바탕으로 많은 병서와 고전을 참조하여 마침내 무술의 기예를 24반으로 체계화하는 무예도보통지를 완성하였고, 병학지남兵學指南 등의 병서들도 간행하였다. 이런 한층 더 체계화된 새로운 무술서와 병서들을 위주로 다양한 무술기예를 병사들에게 지도 전수할 수 있었다.

장용영의 규모가 커지면서 강력한 호위 군사력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군통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었으며 군사들의 정예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군사비용의 문제는 많은 신하들이 염려와 비판의 의견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즉 금군과 무예청의 병사들이 충분히 궁궐을 수호할 수 있고 밖으로는 오영의 장정들이 방비를 견고히 하는데, 또 장용영을 설치하고 계속 확대하여 왜 군비를 과용하느냐고 주장하였다. 이에 정조는 그들의 의

견에 동의하여 군부대를 재편하였고 또한 병농일치 정책으로 소위 둔전을 두어 군비를 마련하였으며 왕실의 돈, 즉 자신의 사재인 내탕금을 털어서 장용영의 군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800년 정조가 죽고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왕권은 약화되었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과정에서 벽과 출신의 영의정 심환지가 장용영의 혁파를 발의하였고 1802년에 폐지되었다. 많은 관원과 병사들은 본래의 군영에 복귀되었다.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정조가 내놓았던 많은 내탕금과 장용영에서 조달하였던 많은 재원은 혜청, 호조, 훈국, 어영, 금영, 군기시, 병조 등의 관청과 경기도를 비롯한 각도에 분배되었다. 정순왕후가 정조의 뜻이라면서 실시한 공노비를 폐지할 때도 그들의 임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용영의 재산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고 규모를 극히 축소하여 화성을 관리하도록 남겨 두었는데 이것이 ‘총리영’ 이다.

정조가 생부 사도세자의 묘인 용릉(당시는 현릉원)에 참배할 때 묵었던 행궁이 있는 화성은 6.25 동남시 미군의 폭격에 의해 많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원래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복원되었다. 그 본래의 모습으로 완벽하

게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전하고 있는 ‘화성성역의궤’ 덕분이다. 각 건물 하나하나의 형태와 치수는 물론 사용한 못의 수량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에 원형 복원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수원은 소위 ‘신도시’ 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다반사이지만 당시까지만 하여도 모든 고을과 현이 자연 발생하였다. 물론 한양과 같이 수도를 천도하면서 왕궁과 함께 백성들도 불어난 경우는 있지만, 수원의 경우는 양주 배봉산에 있던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수원에서 약 8km 남쪽에 위치)으로 옮기면서 처음에는 화산 아래 고을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화성은 실학자 유형원과 정약용의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화성유수 조심태 등이 건축한 우리나라의 성곽 중 가장 과학적이고 장엄하면서도 우아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성내의 신평루에 가면 지금도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무예24반’의 시범을 관람할 수 있다. 2003년 무예24기 시범단 창단되어서 매일 두 차례씩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화성 행궁 신평루 앞에서 시범을 시연하고 있다. 야니 백동수가 펼친 신기의 무예는 시대를 넘어 현대 무사들의 반짝이는 월도와 함께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화성의 야경은 수원이 자랑하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74)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 37권 - 1793년)을 참고로 하여 장용영의 내용을 살펴본다.

‘나’ 보다 ‘우리’가 되는
We are Bene Family

가맹점주님과 하나가 되어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카페베네 본사 인테리어 고문
 나장수 디자이너

브라질 이파네마 커피 농장
 산 페드로 씨

뉴저지 카페베네
 데이빗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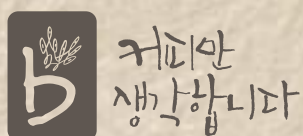
맨하탄 카페베네
 트레이시 씨

일본 하네다 공항 카페베네
 나리스타 켄지 야마다 씨

카페베네의 Family가 되실
미주 카페베네, 가맹대표님을 모십니다

뉴욕에 1호점을 낸 이후 계속해서 그 성장을 멈추지 않는 카페베네- 작은 커피전문점의 꿈을 넘어 세계 글로벌기업을 꿈꾸는 카페베네의 가맹대표님이 되어보세요. ‘나’보다는 ‘우리’ 를 먼저 생각하는 카페베네가 점주님들의 성공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Plan Caffebene
 카페베네 패밀리가 함께하다



카페베네 가맹대표님 모집
 미국 내에서만 현재 100여 개 이상의 매장이 오픈 준비중입니다

1.888.963.9672
www.caffebeneus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人

추(秋)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秋收)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秋收)하게 되었도다.

Do you not say, 'Four months more and then the harvest' ? I tell you,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They are ripe for harvest.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Even now the reaper draws his wages, even now He harvests the crop for eternal life, so that sower and the reaper may be glad together” : 요한복음 4:35, 36

올해 秋석은 5일 간의 긴 연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한 사람들은 아마도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바빴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한꺼번에, 한미 정상 회담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을 것이었다.

새정치연합 의원 54명은 11일 오후 반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상돈 교수(중앙대학 명예교수)를 새정치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당지도부는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추대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상돈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내에 후폭풍 조짐이 짙게 깔린 것.

국회에서 열린 민생 법안 관련 정책 간담회질의 응답 과정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국민 공감 혁신위를 이끌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할 예정” 이란 말 끝에서 그동안 당 내에서 반발했던 ‘비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 분리 요구’ 를 사실상 받아들인 셈?

박영선 위원장의 외부인사 영입 노력은 서울대 조국 교수를 부산에서 문재인 의원이 직접 설득케 했으나 거절 당했고, 박 위원장이 직접 설득 노력했던 강만준 전북대 교수, 조경래 선생께도 거절 당한 후 이상돈 교수 접촉에서 허락을 받은 뒤 문재인 의원과 김한길 전 대표에게 알렸단다.

따라서 이상돈 교수는 박영선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제안했던 교수 중 한 명이 추천했다고 박영선 위원장은 피한 것.

이에 따라 이상돈 교수의 영입은 새정치연

합에 새로운 태풍을 일으킨다.

문재인 의원은 10일 박영선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당 혁신과 쇄신을 위해 외부인사 영입은 동의하지만 이상돈 교수에 대해선 (그분의) 정체성과 관련 당내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는 문의원 주변에서 흘러나온 말.

세월호 특별법 재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21일째 농성 중인 정청래 의원은 개인 성명서를 내놓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며 “만약 박근혜 정권 탄생의 일등 주역인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결사저지하겠다” 고.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보성향의 초재선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도 긴급회의를 끝낸 후 성명,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상돈 교수를 새정치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며 “당 지도부에 영입 작업 중단을 촉구기로 했다” 고.

특히 ‘더 좋은 미래 성명’ 은 그동안 당내에서 거듭 제기해 온 박영선 비대위원장 퇴진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위원장을 옹호해 온 세력의 주축이라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을 예상케 한다.

문재인 의원도 11일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과 다시 통화 “이상돈 교수에 대해 ‘심각하다’ 이대론 안 되는 분위기 아니냐” 는 의견 등이 있다” 고 당내 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천명했다.

반면 이상돈 지지쪽에서는 “전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 혁신 작업만 맡기는 만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이라는 경력이 문제 될 것이 없다” 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또 한

차례 난상 토론이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박영선 위원장이 이미 구성을 마쳤는데 새 비대위원장이 온다 해도 “박영선 체제” 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박영선 사퇴 여부도 변수. 새정치연합은 일부 언론이 박영선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사퇴 보도가 나오자 “사퇴가 아니라” 고 정정. 때문에 박위원장이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와 겸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초선의원은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남겠다는 거라면 어찌 구니가 없다” 며 결국 자기 욕심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秋: 金行之時白藏節금행지사백장절: 가을 추. 이 가을 ‘추’ 는 본래 焠 ‘火: 불화’ 와 ‘禾: 稼之總名가지총명: 생곡식화’ 자가 뒤바뀌어 있었다.

하여간 가을이란 계절은 모든 식량을 대변하는 생곡식 禾(화)자와 이를 익혀 요리하는데 필요한 불화(火)자 나란히 짝지어 있다.

먼저 생곡식화(禾)자는 (1)하나님의 숨결을 그리는 丿: 左引之좌인지: ‘빼질별자’ 성경에 딱 두분이 보여주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生靈)이 된지라: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 창세기 2:7. 다른 한 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제자들)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생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He(Jesus) breathed on them(disciples)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 요한복음 20:22, 23.

하여 이 숨결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인간의 생명과 천국 생명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永生)의 숨결을 뜻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리하시되 성령님께서 동참(同參)하신다.

하여 예수님이 이 작업에 동참하시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신다.

“나의 양식(糧食)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My food,” Jesus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and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 요한복음 4:34.

따라서 禾(화)자를 뜯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생의 숨결과 인(人)자 예수님의 십(십자가) 사랑” 으로 엮어진 것.

그 옆에 火(불화)가 그리는 진리는 “구원을 표시하는 八(여덟팔자)를 人(인)자 예수님이 메고 서신 것(火).” 설명을 더하면 불화(火)는 인자(人子) 예수님 따라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표시한 것.

하여 찰스 프라이어(Charles W. Fry: 1835-1882)씨는 “불길 같은 성령(또는 성신)여” 라는 찬송가를 이사야 6장 6, 7절을 인용 작시(作詩)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한국의 정치권이 성령님의 불을 알고 秋夕을 맞이 했었더라면.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통을 편리하게 한곳에서!

•치아교정	•소아치과
•사랑니발치	•치아미백
•임플란트수술	•악관절(TMJ)
•보철/비니어	•수면진정마취
•신경치료	•3DX-Ray(CT 스캔)



Special!

치아교정 무통 상담

(2013-11-31까지)

Dr. Jeong Sook Lee (장정숙 선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철봉 선생)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우 선생)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IMPLANT • BRACES • COSMETIC

DENTAL

1st.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H

마트

에서

5분

거리



DENTAL IMPLANT CENTER
FIRST CHOICE DENTAL GROUP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4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0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상속세 및 증여세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미국 거주자인 자(子)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취득가액: 4억원, 증여당시의 시가: 10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는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다른 미국의 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증여세는 미국에서는 증여자(증여한 자: doner)가,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donee)가 냅니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와 같이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 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과세문제 발생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는데, 수증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수증자인 자(子)는 비록 한국의 비거주자이지만 증여 받은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 증여 당시 시가인 10억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내는데,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면 전세계 모든 증여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인 김한국씨는 증여 부동산이 비록

한국에 있더라도 증여 당시의 시가 10억원에 대해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 때 김한국씨의 실제납부금액은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子)의 취득가액은 한국과 미국이 달라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과 미국 둘다 증여 당시의 시가인 10억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수증자인 자(子)의 취득가액(즉, 자녀가 물려받은 가액)은 한국과 미국의 세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세법은 증여 당시의 시가인 10억을 수증자인 자(子)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법은 김한국씨의 당초 취득가액인 4억원을 자(子)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는 향후 자(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한국과 미국의 양도차익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子)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12억원에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子)의 한국 세법상 양도차익은 2억원(양도가액 12억원 - 취득가액 10억원)이지만, 미국의 세법상 양도차익은 8억원(양도가액 12억원 - 취득가액 4억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경우,

수증자인 자(子)는 한국에 증여세(증여가액 10억원) 내며, 증여자인 김한국씨는 미국에 증여세(증여가액 10억원)를 냅니다(만약, 통합세

액공제내 금액이면 실제 낼 세금은 없음). 이때 자(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한국세법상으로는 10억원, 미국세법상으로는 4억원입니다.

참고로, 김한국씨가 자(子)에게 미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현금 10억원을 먼저 증여한 후, 자(子)가 그 자금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이 자금을 증여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 ①자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문제와 ②부동산 양수도과 관련한 양도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먼저 취득자금의 증여세 문제를 보면, 이 사례는 미국에서 미국 거주자간에 미국의 자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한국에서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미국에서 증여자인 김한국씨가 증여가액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물론 증여가액이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이 1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양수도과 관련한 양도세

다음으로 한국의 부동산 양수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보면, 한국의 비거주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한미조세조약및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양도차익 6억원(양도가액 10억원 - 취득가액 4억원)에 대해 한국에 양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의 세법에서는 배우자간이나 직계존비속간의 매매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명백히 매매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따라서 만약 김한국씨 부자간의 매매거래가 증여로 판정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한편 김한국씨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미국의 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6억원에 대해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子)의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임

이렇게 양도거래가 이뤄지면 자(子)의 취득가액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실제취득가액인 10억원이 인정됩니다. 이는 향후 자녀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10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두 사례뿐만 아니라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 기타 경제적, 비경제적인 모든 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47)

S&P 500 지수 수익률

미국 뉴욕증시에서 8월 26일 (2014)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S&P 500지수가 1998년 2월 1,000선을 돌파한 뒤 16년 만의 일이며 100에서 1,000에 도달하는 데는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했던 S&P 500지수는 이날 2,002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이로써 올해 들어서만 30번째 최고 기록하면서 8.2%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3월 9일 676까지 떨어졌던 S&P 500지수가 불과 5년여 만에 3배 가까이 올라간 것입니다.

S&P 500 지수는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가 미국의 주요 대기업이 발행한 종목을 대상으로 형성됩니다. S&P 500은 지수 작성 대상 회사 주가에 상장주식 수를 곱해서 시가총액을 구하고, 그 종목마다 시장가치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방식입니다.

방송매체에서 자주 인용하는 다우(Dow) 지수는 단 30개의 종목 주가로 지수를 형성하므로 다우지수만으로 시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지수로는 가장 먼저 나왔기에 많은 사람에게 익숙함으로 다우지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 즉 500 인덱스 펀드는 대부분 뮤추얼 펀드 회사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되므로 투자한 회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부과하는 경비로 뮤추얼 펀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밴가드(Vanguard)회사가 운영하는 500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설명해 봅니다. 밴가드 500 인덱스 펀드에 누구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단 \$100 불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도 나의 투자돈이 503개 회사로 분산투자됩니다.

밴가드 500 인덱스 펀드에 현재 투자된 총 액수는 \$1,768 억 달러

(\$176.8 billion)이며 투자하는 데 부과되는 경비는 0.05%입니다. 투자되는 503개의 회사 크기 순위는 애플, 액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제네럴 일렉트릭, 등으로 설정됩니다.

인덱스 펀드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500여 개의 회사가 설정되므로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와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대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500개의 회사에서 장래에 주가가 상승할 회사만을 선별하고자 합니다. 펀드 매니저의 선택에 따라서 500개 회사에서 단 50개 회사만을 설정할 수도 있고 300개 회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수는 펀드 매니저에 달린 것입니다.

지난 500 인덱스 펀드의 과거 수익률은 2011년은 2%, 2012년은 16%, 2013년은 32%(주식매담금 포함), 등입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상승한

50개 회사를 선별했다고 가정하면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은 500개 회사의 평균인 16%보다는 더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이겼다고 (beat) 하는 것은 평균 인덱스 수익률보다 더 높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는 주식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더 높게 하려고 회사주식을 선별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는 액티브(active) 펀드라 말하고 펀드 매니저가 없는 인덱스 펀드는 패시브(passive)펀드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지난 1년 미국에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 약 70%가 패시브 펀드에 투자되었고 나머지가 액티브 펀드에 투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액티

브 펀드는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뒤떨어지고 경비는 오히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을 이겨보기 위한 투자는 오히려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경비가 저렴하고 수익률이 더 높을 확률이 있는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4 즉문즉설 세계 100회 강연 8.26~12.18

버르스님 법관스님 희망세상만들기

보스톤 강연
9.24(수) 저녁7시

617-583-2339

9.24(수) 저녁7시
Harvard Univ. Science Center Hall C
1 Oxford St, Cambridge, MA 02138
문의: (617)977-4227, (212)222-0636

<선착순 무료입장>



전체행사일정

www.jungtosociety.org
facebook.com/wehopeworld



주최: 정토회 | 주관: 정토회해외지부&보스톤열린법회 | 후원: 하버드대학한인학생회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학부모/교사 면담 - 빠질 수 없는 대화의 기회

9월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올해 이수할 교과목을 모두 정하고 운동, 음악, 기타 클럽 활동 스케줄을 짜느라 모두 바쁜 시기다. 특히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11학년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졸업반 학생들에게는 1년을 어떻게 시작할 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로서의 가장 큰 학교 이벤트인 학부모-교사 면담 또한 학기가 시작되며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학부모-교사 면담(Parent-Teacher Conference)이 의무는 아니다. 즉, 학교에서 면담 날짜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면담 기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교사와 만날 수 없는 것 또한 아니다. 딱히 담당 교사와 상담할 내용이 없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사 참석하지 않는다고 학교 측에 알려도 학생에게 무관심한 부모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학기 초에 굳이 학부모-교사 면담 시간을 지정해 놓았다는 것은 그 시기에 학부모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는 학교 측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Newton South 고등학교는 개학하는 첫 주에 새로 9학년으로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새로 편입해온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위해 시간을 배정해 놓았다. 같은 맥락으로 개학 둘째 주 수요일 밤은 졸업반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위한 면담 시간이다.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학생들, 대학 지원이라는 큰 산을 눈 앞에 둔 학생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원활한 학부모-교사 면담을 위해선 학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Conference라는 명칭에 걸맞듯 교사나 학교가 학부모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는 것이다. 필자가 학원에서 담당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도 종종 수업의 진행 상황, 학습 목표 등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해 궁금한 점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고등학교에서 중요시 하는 교우 관계(Peer relations), 문제 해결 능력(Problem-solving skills), 시간 관리(Time management) 등에

대한 질문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학업 능력과 관련한 질문을 해도 된다. 다만 단순히 내신 성적이나 시험 점수에 대한 것으로 질문을 국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객관적인 숫자는 성적표에 나온다. 학생의 장점, 학습 태도, 교사의 수업 방식 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더 좋겠다.

학부모-교사 면담은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긴장감이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단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대하는 교사의 경험을 믿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과도하게 변명을 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학부모와 교사 모두 받아야 학생의 생활 습관이나 학업 능력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나눌 수 있다. 가정에서의 행동과 학교 생활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지,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편에 서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이런 점들을 고쳐주세요' 라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

할 때가 많다. 교사에게 의존하는 태도보다는 '이런 점을 고치기 위해 가정에서 노력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서 바른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나요?'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담당 교사 입장에서 더 효율적인 대답을 해 줄 수 있다. 영어가 자신 없다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종이에 기록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는 면담을 통해 교사와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을 메일로 미리 보내는 것도 효과적인 면담을 위한 노하우이다. 이때, 영어 표현에 익숙한 사람과 함께 학부모로서의 예의를 갖춘 글을 쓰도록 하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같은 질문이라도 어조에 따라서 질문의 의도가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십시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미국 최고 명문 보딩학교 탐방 시리즈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페이 스쿨(Fay School) 3

캠퍼스 라이프

공립과 데이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일 타운(Town)이나 주(State) 출신이 많아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친구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딩의 경우는 타주, 타 국가 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 배경, 경험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페이 역시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최고의 질적인 교육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노력하는 학교중 하나이다. 매년 봄방학 기간동안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등 다양한 국가 방문을 통한 문화 체험, 봉사활동, 그리고 언어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보딩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리더십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대표적인 리더십으로는 반장, 전교회장, 기숙사 사감(Proctor), 학생 앰버서더(Student Ambassadors), 채플 사감(Chapel Prefects), 다이버시티 대표(Diversity Representatives) 등이 있다. 학생들의 주간 스케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이 있고, 오후 3시 30분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동, 6시 30분까지 저녁, 그리고 7-9시까지 스터디를 시간으로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에는 소등을 하고 취침을 하는 스케줄로 주중에 매우 분주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짜여 있다. 학교가 주변 타운들과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들이 Southborough Food Pantry, Our Father's Table, Cradles to Crayons, Community Harvest Project, Michael Lisnow Respite Center 등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 식당에서는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되며, 특히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음식, 샌드위치, 매일 새로운 주 요리, 그리고 디저트 등으로 식단이 구성되어 있다. 페이는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앓을 테이블을 학교에서 지정해주면서 매년 학생들을 바꾸어 앓게 하여 다양한 친구를 사귄 수 있게 배려하고 동시에 선생님들도 매년 테이블을 바꾸어 앓게 하여 많은 학생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모든 식사는 매년 학교에서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프거나 운동 경기로 인해 식사를 못할 경우만 빼면 항상 학생들이 식사를 학교에서 해야만 한다. 모든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식당에서 일정한 일을 해야 한다.

주말에는 학교에서 백화점 쇼핑, 식당, 극장, 음악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 해주고 있다. 일요일에는 학생들 각자가 원하는 종교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스터디를

에서 두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한다.

고등학교 진학 학교

미국 주니어 보딩 학교에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최고 명문 보딩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페이는 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들만 4명으로 다른 어느 주니어 보딩 학교들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진학을 돕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최고의 보딩학교들로 진학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 추천서,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진학 상담, 그리고 4명의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들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진학한 학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브룩스(Brooks), 초트(Choate Rosemary Hall), 콩코드(Concord), 디어필드(Deerfield), 핫치키스(Hotchikiss), 로렌스빌(Lawrenceville), 루미스세프(Loomis Chaffee), 미들섹스(Middlesex), 필립스 앤도버(Phillips Academy), 필립스 엑시터(Phillips Exeter), 세인트 폴스(St. Paul's), 세인트 마크스(St. Mark's), 세인트 조지(St. George's), 밀튼(Milton), 그로톤(Groton) 등의 학교에 진학을 많이 시켰다. 위의 학교들은 미국 최고

의 보딩학교들로 입학이 까다롭기로 널리 알려진 학교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년 많은 한국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페이 진학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학 요건과 전략

페이 입학을 위한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 학교를 알고 접근해야 입학 확률이 높지, 단지 우수한 학교 성적과 SSAT 성적, 그리고 액티비티만으로는 입학 거절률이 매우 높은 학교이다. 다른 학교들과 달리 외국 학생들의 경우는 7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학교가 ESL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영어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페이는 인터뷰 예약을 위해 먼저 원서를 보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투어와 인터뷰 후에 원서를 쓰면 학교 에세이와 원서를 어떻게 써야 그 학교와 잘 맞는 학생인지를 원서에 담을 수 있지만 원서를 먼저 쓰는 경우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학교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하다.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는 성적, 인터뷰, 추천서, 지원서, SSAT, TOEFL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가 어떤 성향이고 자신이 페이 공동체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공헌을 할 학생인지를 밝히면 입학 확률이 높아진다. (입학전략은 다음 호에 계속...)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동양식당 히바치/스시 우스터 클락유니버시티, 저녁 한끼 Full 리커 면허증
연매상 \$250,000 매매가격 \$129,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14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80,000 매매가격 \$60,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67,000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3,000 매매가격 \$3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퓍아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식 강의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식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